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JUN 1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59 1983년 6월15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une 15,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소년야구대회 일정 일부변경

주일 예배시간 피해

7월3일경기는 9일 코로네이션·팍으로

당초 7월2일(토)과 3일(일) 양일간 에토비콕소재 센테니얼·파크(Centennial Park)에서 거행예정이었던 제2회 토론토한국일보사배 어린이 야구대회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14일 주최측에 따르면 2일 경기는 종전과 같이 낮12시부터 센테니얼·파크에서 실시하되 3일경기는 교민들의 주일예배 참가를 위해 9일(토) 하오2시 코로네이션·팍(CNE정문앞)으로 바꾸었다.

어린이 스포츠의 진흥과 건전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어린이 야구대회를 창설한 본사는 각단체로 부터의 요청에 의해 금년 2회부터는 소년부(196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14세까지)를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어린이부는 197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구성된다.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천주교, 미시사가연합교회, 오샤와세종한글학교 등 많은 단체에서는 이미 어린이야구팀을 창단,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시사가연합교회는 어린이부팀을 구성, 엘리자베스고등학교 야구장에서 매주 토요일 5시와 일요일, 오후3시부터 맹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부 우승팀인 토론토한인연합교회와 천주교는 어린이부와 소년부의 2개팀을 각각 창설, 연습에 한창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준우승팀인 통일팀도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팀은 토론토한인야구협회장인 김문량씨가 창설한 야구팀이다.

천주교에는 60여명이 야구팀에 출전할 것을 희망, 이중에서 엄선하여 어린이부과 소년부에 출전할 2개팀을 선정했다고 신우원 체육부장은 밝혔다.

주최측은 교회·한글학교등 32개 단체에 참가신청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참가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의 심판위원장겸 진행위원장인 박재선씨는 경기규칙과 방식은 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OASA)의 규정을 적용하고 어린이부와 소년부 공히 소프트볼(11인치짜리)을 사용하며 투구(Pitching)는 언더드로우(Underthrow)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인최초로 소프트볼 코칭면허를 취득한 박씨는 대회 운영상 필요한 제반규칙은 감독자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감독자회의는 24일(금) 오후7시 본사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대회의 시상은 단체각부문 1,2,3등에 대한 트로피와 개인상부문에 최우수선수상, 투수상, 타격상, 감투상, 장려상등이 부상과 함께 수여된다. 이외에도 응원상이 첨가된다.

TTC 정류장 표지판이 바뀐다

토론토교통위원회(TTC)는 TTC운영버스및 전차정류장의 표시기둥에 STOP(정류장)이라는 문자대신 버스나 전차의 그림을 넣기로 최근 결정했다.

TTC 대변인 알·퀘제니욱씨는 또한 표시기둥의 길이를 현재의 4피트에서 3피트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트로·토론토내에는 9천여개의 TTC정류장 표시판이 세워져 있다.

퀘제니욱대변인은 이같이 문자대신 그림으로 정류장 표시를 바꾸는 이유중의 하나는 버스나 전차를 타려 뛰어오면 미처 타기전 버스나 전차가 떠나버리는데 대한 불만으로 "STOP"표시글짜를 가끔 지워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찰스황태자부처 캐나다방문

유니버시아드게임 개막식 참석등 18일간 체류

◆14일 부터 18일간 캐나다를 방문하는 찰스황태자 부처.

찰스 영국 황태자부처가 18일간 캐나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4일 노바스코시아의 쉬어워터 캐나다군기지에 도착, 에드워드·슈라이어총독을 비롯한 500여명의 환영을 받았다.

대서양 연안주들과 에드몬톤및 오타와를 방문할 이들 부부는 에드몬톤에서 월드·유니버시티·게임즈 개막식에 참가하는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찰스황태자부부는 이번 여행에 아들 윌리엄공을 동행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15일 노바·스코시아에서 트루도수상이 베푼 게스트 650명 초청의 만찬에도 참석한다.

찰스황태자에게는 이번이 7번째 캐나다 방문이며, 다이애나비로서는 첫번째 방문이다.

찰스황태자부처의 캐나다방문 일정및 방문지는 다음과 같다.

*15일 : 핼리팩스, 아나폴리스·로열
*16일 : 쉘번, 브리지·워터, 루넨버스(노바·스코시아)
*17일 : 세인트·죠지
*18일 : 세인트·로, 캠벨튼, 댈루지
*19일 : 세인트·앤드루스, 뉴브룬스윅에서 다시 핼리팩스
*20일 : CFB 쉬어워터(뉴브룬스윅)에서 오타와로 향발
*21일 : 오타와
*22일 : 세인트·존스 향발
*23일 : 세인트·존스
*24일 : 케입·스피어 내셔널 히스토릭 공원
*25일 : 뉴펀들랜드 카보니아와 그레이스항구
*26일 : 살롯트타운을 향해 호화선 브리태니카로 향발
*27일 : 살롯트타운과 몰타뉴
*28일 : 서머사이드와 살롯타운
*29일 : 살롯트 타운, 에드몬톤 향발
*30일 : 에드몬톤
* 1일 : 에드몬톤, 런던향발

오늘의 예금금리(6/10~7/19)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90일	7.75%		7.00%
120일	8.00%		7.25%
180일	8.25%	8.75%	7.50%
365일	8.75%	8.75%	8.0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올림픽시리즈 방영

MTV 주간특집

MTV 토론토방송은 앞으로 주간특집 '84 올림픽겨냥(Countdown to Olympics '84)시리즈를 방영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6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될 이 프로그램은 각종 올림픽종목 경기에 대한 해설및 국제기록등을 심층 보도한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로스엔젤레스올림픽등의 준비상황과 대회성격등의 각종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맥주회사인 칼링·오킵(Carling O'Keefee)회사가 제공하는 이 기획물은 세계 중요 스포츠를 소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MTV는 채널 47, 케이블 4로 토론토내에서 방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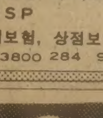
이 특집방송에 관한 문의나 연락은 전화 593-4747 교환 278 알랜·슈와츠씨에게.

◆13일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려 토론토 동쪽의 웃바인·비치에 몰려든 인파. 이날 온도는 섭시 31도를 넘어섰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무더위는 적어도 18일 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처 에어컨을 설치 못한 사람들은 밤늦게 까지 집밖에서 땀을 식히기도 했다. 토론토의 기온이 6월중순에 가장 높았던 것은 1956년의 34도-35도 였다.

관계기사 2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 C.A.
Chartered Accountant · Comptable Agree

강화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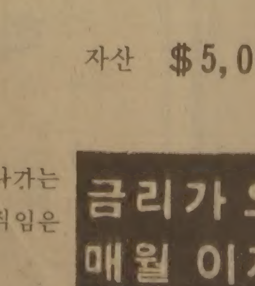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란콤 시세이도 화장품
로렉스시계
오메가시계 45%~50%
귀국선물
결혼·약혼예물 할인판매
620A BLOOR ST. W.
☎ 534-9977·7791

특별금리의달

자산 $5,000,000 달성을 눈앞에 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 은 보다 높은 금리로 보답하고저 "특별금리의 달" 을 설정하였읍니다.

바닥이 드러나가는 일반금리의 움직임은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며
매월 이자를 받는 월복리의
오뚜기 정기예금!!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교민이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이 높은 이익을 받아가십시오.

이율	예금종별	기간별	한인신용조합	참고 일반은행	기간
	일반정기예금	30~90일	7.75%	7.00%	6월10일부터
		120일	8.00%	7.25	7월19일까지
		180일	8.25%	7.50	40일간
		365일	8.75%	8.00	
	오뚜기 정기예금	6개월 이상	8.75%	—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TORONTO
PHONE: 533-9387/9388

JUN 1 5 1983

박부총영사 우승

77명 참가한 한맘골프대회

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이 주관한 제7회 교민친선골프대회에서 박영철(부총영사)씨가 우승했다.

지난 11일(토) 12시, 글렌이글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날의 대회는 77명의 골퍼가 참가, 열전을 벌렸다.

특히 LA로 부임한 고종옥신부가 잠시 토론토를 방문한 중에 출전, 이채를 띄었다.

이날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로스챔피언 박영철
2등 강태영
3등 김창갑
4등 정길수
5등 김인환
▲네트 챔피언 임정재
2등 김종욱
3등 김한용
4등 김성운
5등 최상철
▲롱게스트 드라이브 : 임중남
▲니어리스트 홀 : 이기훈
▲모스트 어네스트 : 이기천
▲러키 세븐 : 송종관

◆시상하고 있는 고종옥신부(왼쪽)와 우승자 박부총영사, 오른쪽은 4등 입상한 정길수씨.

농작물 피해심해

대기중 오존층 급증때문

최근 급변동하는 일기와 기온때문에 남부온타리오 일원의 농작물이 타격을 받고 있어 금년 수확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과 동시에 기상변화로 인한 공해오염도도 심상치 않아 각종 피해 농작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온타리오환경성은 지난주말 측정한 대기의 오존층의 급증으로 인한 곡물 피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의 닥터 데이빗·바실리씨는 정상적인 오존량인 30파트(Parts)보다 2-3배 높은 80파트를 기록, 위험량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오존층의 급증현상은 남서풍의 기류에 의해 미국 오하이오주 일대의 공장지대에서 날아오는 공해가 쌓인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온주환경성당국은 금주내에 남부지역에 대한 곡물오염도 측정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상황은 이미 100만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닥터 바실리씨는 또한 모든 농작물들이 오존층의 파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농부들은 이에 따라 오존에 잘 견디는 감자와 콩등의 농작물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료가 타고 남을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오존층은 지상 2킬로와 30킬로사이에 많이 생기며, 특히 자외선을 흡수해버려 고온을 유지시킨다.

교민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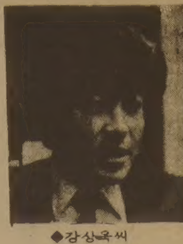
◆김영림양

◆김연근·성상임씨 부부=맏딸 영림(Sylvia)양이 재학중인 킴시티·세컨더리·스쿨에서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여자로서 남자들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이긴 것이 더욱 대견스럽다고 말하는 아버지 김씨는 딸자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다소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딸의 회장 당선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67년 캐나다이민, 현재 모 케네디언 회사의 생산 메니저로 있다. 1개월간 치밀한 선거운동끝에 당선된 김양(12학년)은 특히 영어와 역사를 좋아하며, 장래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제5계절

인화(人花)

강 상 욱(메릴린치증권회사 근무)



◆강상욱씨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친께서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겠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생각 끝에 설화(雪花)가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人花, 즉 애기꽃이라는 것이었다. 애기는 꽃중의 꽃이라! 그러나 당시는 이러한 생각에 도대체 수긍이 가질 않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며, 한마디로 아이는 성가신 존재로 생각되었을 뿐 이었다. 막내와 그 윗 아이의 터울은 7년이 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막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도 계속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내가 태어난 후, 그 아이를 병원에서 처음 안아본 순간, 이것이 나의 핏줄인가 하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부터 막내를 키우는 기쁨이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재롱부리는 아기의 아름다움에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쩌면 아빠가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축복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생활인의 입장에서는 늙어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자식을 남긴다는 것이 더 뜻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부활에 대한 희망은 더 강해지지만 또 의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즉 전지전능하신 신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탄생을 태초에 이룩하셨다면, 인간의 부활은 신에게는 아주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신이 인간의 부활을 원하느냐, 아니면 원치 않느냐에 있을 것이다.

집안 할아버지 중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서로 소일하신 분이 있었다. 그 분의 말씀 중에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은 죽음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늙거나 병들어도 죽지 않고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면 인간은 지렁이처럼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될대로 되라는 식의 생활이 되어 이 세상은 추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세상에 탄생이란 선물과 함께 죽음이란 선물을 동시에 부여함으로 인간세상을 질서있게 하고, 생동할 수 있게 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그 나무를 죽었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듬해가 되면 또 새로운 잎이 나온다. 사람이 죽는 것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새로이 탄생하는 자식들이 아빠와 엄마의 생각과 꿈을 이어받아, 새롭게 살아준다면 아빠, 엄마가 영원히 죽지도 않으며 지렁이처럼 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을 가미한 신비한 새로운 세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을 낳아 잘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룩하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金聖鍾작

치경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54>

누가 悪魔인가 ⑮

마현사는 풀이 죽어 말했다. 대머리는 자세를 고쳐앉았다. 앞으로 상체를 기울이며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저도 모르겠읍니다』

마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람이 한짓이라고는 생각되지않아.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말이야』

『……』

마인은 대머리의 말에 공감했다. 그역시 제5의사나이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지않았다. 그만큼 그자의 행동은 신기에 가까왔던 것이다.

『나는 그자식한테 감동했어. 적이지만 감동했어. 정말 경탄할만한 놈이야』

대머리는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는 창조적인 인간같습니다. 그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아주 독창적인 놈입니다. 두뇌싸움에서는 결코 지지 않을 놈입니다.』

『그럼 어쩐다? 일주일동안에 놈을 체포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자신할수없읍니다. 그자에 대해서는 자신은 금물입니다. 어떠한 자신도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말도안돼"… 대머리는 홍분하기 시작

『나는 자네를 믿는데 자네가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면 그놈을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

대머리는 호소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마현사는 시선을 피했다.

『글쎄요』

『우리는 모든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해. 그놈 하나 못잡는다는건 말도 안돼!』

대머리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제깐놈이 아무리 천재라해도 우리는 천명 어천명, 아니 만명도 동원할수 있어! 장비도 우수하고 기동력도 있고 정보체계도 잡혀있어! 어느 구석에 개미새끼 한마리 기어가는 것도 포착할 수가 있단 말이야!』

朴 男 그림

『네,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놈을 놓치지 않았읍니까』

『불가사의해! 생각할 수 없는일이야!』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는 혼자서 우리 모두를 우롱했읍니다. 도주하면서 세명을 단숨에 처치하기도 했읍니다』

『놈은 날아다니나? 아니면 투명인간이란 말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

『제가기대하는건놈의실수입니다』

『실수라고?』

『네, 실수 말입니다. 영리한 놈한테는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결코 두뇌싸움에 질 놈이 아닙니다. 하지만 천재도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자기피에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올겁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겠읍니다』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땐가?』

대머리는 노엽다는듯이 마현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할수 없읍니다. 놈은 지금쯤 안전권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아무리 뒤져도쉽게 드러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있을수야 없지 않나?』

『물론이죠. 수사는 계속해야죠. 놈이 거기에 걸릴리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효과는 있을겁니다』

김미영 무용연구소

여름학교 7월4일 개강

김미영 무용연구소의 여름학교가 오는 7월4일부터 8월12일까지 6주간 계속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될 여름학교의 강습내용은 기본동작, 화관무, 부채춤, 살풀이, 장고기법등이며, 기초반을 마스터한 연구반은 오고무를 익히게 된다.

주로 씨알한국인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질 초·중등반은 오전9시반 부터 11시반까지, 중급반, 고급반, 부인반등은 오후12시반 부터 3시반까지 계속된다.

작품창작등에 주력, 한국전통 무용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는 연구소장 김미영씨는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특히 부인반을 권장하고 싶으며, 무용강습에 필요한 복장, 소도구등은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위치는 250 Brookdale Ave, John Waneless Public School이며, 수강신청 접수는 7월4일 오전9시 부터 학교에서 실시된다.

문의 전화는 762-8999.

인터내셔널·피크닉 대회

30일부터 4일간 시청앞광장과 CNE에서

이탈리아계 토론토 언론인인 자니·롬바르디가 창설한 인터내셔널·피크닉 83년도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7월3일까지 4일간 시청앞광장인 나단·필립스·스퀘어와 CNE에서 거행된다.

미스·비키니 대회, 육체미 챔피언쉽, 어린이 달리기대회, 몰슨맥주가 제공하는 민속춤대회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질 이번 대회에는 또 스페인출생가수 미구엘·보세, 이탈리언 트럼페트 주자 니니로소등의 연주도 곁들인다.

작년대회에 약20만명의 인원을 동원했던 인터내셔널 피크닉은 금년으로 제16회를 맞는 연례행사이며, 자니·롬바르디는 다국어방송인 CHIN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 언론인이다.

이민이후 칼리지 스트릿의 야채상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는 막강한 재력을 이탈리언 코뮤니티의 권익향상에 주로 써온 토론토의 유명인사 중의 하나이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작년 인터내셔널 피크닉 대회 광경.

인터내셔널·피크닉의 행사예정표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

1. 일일농장 : 양, 염소, 거위, 당나귀등을 풀어놓아 어린이들이 직접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CNE.

2. 어린이 달리기 대회, 어린이 릴레이 : CNE.

3. 어린이 칼러링 대회.

▲스포츠 행사

1. 롬바르디·컵 육체미대회

7월1일 하오2시 CNE. 상품과 트로피가 증정된다.

2. 몰슨 축구시범

7월1일, 2일, 3일, CNE구장, 볼리쟈드, 온타리오 축구협회등의 협찬으로 축구보급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미스 비키니대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상금은 5천달러. 2일하오2시 CNE에서 개최된다.

▲제7차 몰슨 민속춤상

7월2,3일 이틀간 CNE에서 계속되며 3천달러의 상금이 달려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수영장 개장

메트로 자연보호구역내

메트로 자연보호구역내의 모든 수영장이 6월 첫주말부터 개장했다.

보이드(Boyd) 클레어빌(Claireville), 그린우드(Green Wood), 부루스·밀(Bruce's Mill), 알비온·힐스(Albion Hills), 하트·레이크(Heart Lake), 페티콧·크릭(Petticoat Creek)등의 천연및 인공수영장으로 매일 오전10시 부터 해질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년 여름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자연보호지역에서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가족캠핑, 보트임대, 승마및 마차타기등 여름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지역내의 장소사용, 입장료등을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입장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성인의 경우 2-4달러 안팎이며, 학생과 어린이는 1-1.75달러, 가족당 5-8달러 선이다.

개장 시간은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6시 까지. (캠핑장 제외)

한편 캠핑장 사용료의 경우 가족당 7-8달러이면 사용할 수 있다.

약간의 파킹료도 부담하게 된다. 평일 대당 2달러, 주말 3달러, 연 통행패스 30달러 등이다.

메트로·토론토보호지역은 1957년에 구획이 지정됐으며, 온타리오정부의 지원아래 48개 지역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수로개발뿐 아니라 사방공사, 홍수방지, 계곡관리, 산림보호등의 전문분야를 담당, 자연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육지뿐만 아니라 섬이나 호안지역의 미관이나 개발, 자원보존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년회 관광

날자변경

날씨관계로 "체리"가 익지 않아, 7월 9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일시 : 83년 7월 9일(토)
출발장소 : 크리스티 써브웨이 공원 앞 /아침 8시 30분
회 비 : 1인당 20불
준 비 물 : 카메라
문 의 : 755~8079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감사 말씀

지난 11일(토)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열린 저희 양친(박봉춘 윤갑순) 금혼식에 바쁘신 중에도 몸소 오시어 축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3. 6.

큰아들 박천봉 외
가족일동 드림

샛별한글학교

여름학기
학생모집

기 간 : 7월4일~8월5일 (5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 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학 급 : 유치반 고급반
초급반 고급반
중급반
등 록 : 7월4일 전까지(전화등록받음)
수업료 : $120 (5 주간).
문의 및 연락처 : 이영희 293~3149
문관식 923~2007
학 교 위 치 : CHURCH HEIGHT Public School 749 Brimorton Dr. Scar. Ontario (1 Block south of Ellesmere Road)

샛별한글학교

노마·쉬어러씨 타계

오스카상 수상한 캐나다 여배우

(로스·엔젤레스)30년대 헐리웃영화계의 스타로 영화 이혼(The Divorce) 에서의 연기로 오스카상을 획득한 몬트리얼출신 여배우 노마·쉬어러(Norma Shearer)씨가 12일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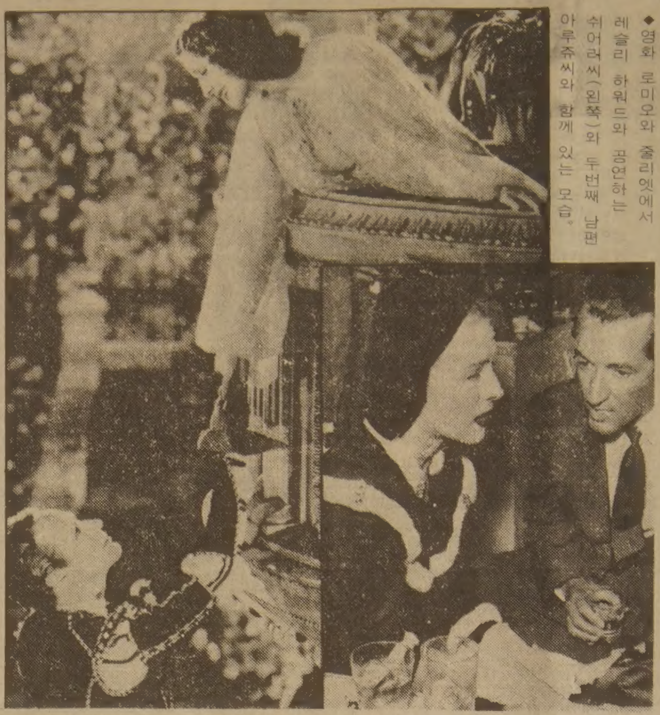
1942년이후 영화계에서 은퇴한 쉬어러씨는 웃랜드·힐즈 교외에 있는 영화및 TV관계자 전용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숨졌다고 병원대변인이 밝혔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뉴욕의 연예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집안의 피아노를 팔아 여비를 장만했던 쉬어러씨는 1920년대 무성영화에서 출발, Strangers May Kiss, A Free Soul, Riptide, Remeo & Juliet등 많은 유성영화에서도 성공했으며, 1927년도에 MGM사의 제작자 어빙·탈버그씨와 결혼한 그녀는 36년도에 남편의 사망으로 450만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었다.

1남1녀의 어머니었던 그녀는 42년 은퇴와 더불어 연하의 스키교사인 마틴·아루쥬(당시 27세)씨와 재혼했다.

할리웃의 가장 옷 잘입는 여성으로도 정평이 났던 쉬어러씨는 레슬리·하워드, 클락·게이블등과 공연했다.

◆몬트리올출신으로 할리웃을 주름잡은 여배우 노마·쉬어러씨가 MGM사 제작자인 탈버그씨와 1927년 결혼하는 모습. 쉬어러씨는 13일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레슬리 하워드와 공연하는 쉬어러씨(왼쪽)와 두번째 남편 아루쥬씨와 함께 있는 모습.

〈독자의 소리〉

自由 平等 民族에 対하여

— 김동길 박사의 강연을 듣고 —

박찬도

한국의 역사는 권세가의 횡포로 심히 눌리는 역사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의를 위해 직언을 하는 충신이 있었고 자기 욕심을 버린 위대한 양심가도 있었다. 돈가지고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욕심 보다도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인생사는 맛을 아는 것이 귀중한 데 한국사람은 명성욕과 이기욕구가 너무 과하다고 유모어로 표현하여 우리 양심에 자극을 주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최고 가치가 그 표현방식이 다양하고 무한 할지라도 집약하면 자유와 평등이라 하였다. 일단 동감 한다.

막연한 개념으로서의 자유평등은 양심과 정의감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 할 문제로 아나 정확한 개념으로 볼 때 나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한다.

김박사는 자유 평등의 관계는 자유를 가지면 평등을 못갖게 되고 평등하려면 독재해야만 하니 자유 평등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는 평등(진정한 의미의 평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유와 평등은 동질이다.

자유는 그 본질 가치가 감욕에 있고 〈감욕으로서 덜 부자유스러워지는 것임〉 감욕 함으로서 비과소욕화 하는 데 〈인간의 동질수남 생리로서〉 자유 사회화에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비과욕·비과소욕 생리(자유생리)가 바로 진정한 평등을 만들 수 있는 평등심이다.

이와 같이 자유의 개념을 바로 알면 자유가 평등을 만들고 평화 번영도 만든다는 사실은 믿는다.

이러한 자유가치를 몰라서 자유 없는 가짜 평등을 만든 것을 보고 그것을 평등인 줄 착각하여 평등을 하자면 독재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치를 과소평가 하게 되며 따라서 자유화도 못시키고 따라서 평등화도 못시키는 것이다.

"자유를 하자니 평등 안되고 평등 하자니 자유 안된다. 그러니 박애정신으로 무엇을 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어설픈 이론이 나온다. 사랑의 박애정신이 바로 비과욕화요 또한 비과소욕화 하는 자유생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맞되 사랑 따로 있고 자유 따로 있고 평등 따로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이질이라면 박애를 갖다 얹어놓은들 자유 평등은 공존 못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도 평등도 못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 평등도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만 존재 의의가 있다 하였다. 이것도 틀린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평등은 그 원인이 자유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자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네가 불남용 불위축(비과욕 비과소욕) 생리되어 자유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가정의 자유화, 친구그룹의 자유화, 한 고을의 자유화, 나라의 자유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세계의 자유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제풀로 저절로 되어 가는 것이며 그외의 방법으로는 자유도 평등도 무슨 수를 써서도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런 자유 상황이 바로 주체, 자주, 주권의 성질을 각 단위에서 가져지는 것이며 그중에서 국가단위가 가장 합동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짙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국가 주체의식을 인간 주체의식 위에다 놓으려는 민족전제로서의 주권을 논하면 이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경시하는 독선의 경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국가 주체조차도 잃어버리고 만다. 〈인간 주체의식 없는 허수아비들로서 국가 주체·주권이 찾아 질리 만무하다.〉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이 민족을 전체로 하는 자유 평등이니 주체니 하는 이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자유화는 물론 국가 자유화도 못 이룬다.

다음으로 민족 주체가 가장 중하니까 우선 민족통일 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나는 한마디로 자유·평등(개인과 국가)이 가장 중하고 민족은 그 다음 가치의 것이다. (물론 민족도 대단히 중하다.)

그러므로 자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둘로 쪼개져 있는 한국을 넷으로 또는 열개로 라도 쪼개야 한다. 그리고 각기 이루어진 자유 평등의 역량에 의해 민족이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 그분 말씀은 남북분단이 자유 평등화에도 장애가 되니 통일를 시켜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자유 평등화에 장애 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남북 분단이다. 그러므로 남북분단이 주는 요인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자유 평등화에 별 도움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자유 평등 질서 상태(국민의 마음 본질 상태)로서 상이한 체제가 합쳐지려면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 올것이 두렵다. 그러므로 자유화(민주화)에 먼저 힘써야 하고 그리고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행동의 중요성에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이 비자유(과자유, 독재,과욕)이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단위로서의 자유 자주만 생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개인의 자유는 억압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잠재해 있음이고 개인 자유를 억압해야만 민족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있음이다.

이같은 개인의 독재생리가 바로 국가독재불평등(혹은 북한과 같은 가짜 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암적증상으로서 그 마음부터 개인 인권존중의 자유의식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 적
액 사 및
성 화
초 상 화
☎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종교계소식

교계소식
533-2361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대통령보다 인기좋은 포웰 목사

보수계 여론조사, 레이건은 2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수주의자로 「모럴머조티」의 창립자인 제리·포웰목사가 선정되었다.

보수계열의 잡지 「콘서버티브 다이제스트」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남성
1)제리·포웰목사
2)레이건 대통령
3)컬럼니스트 윌리엄·F·버클리
4)제임스·와트 내무상
5)컬럼니스트 패트릭·부캐넌

◉여성
1)필리스·슐라플라이
2)진·커크패트릭 UN대사
3)낸시·레이건
4)엔·버포트 전 EPA청장
5)코너우·마쉬너 연방의회재단 관리

◉연방의원
1)제시·헬름스 상원의원 (공화·노스캐롤라이나)
2)잭·캠프 하원의원 (공화·뉴욕)
3)윌리엄·암스트롱 상원의원(공화·콜라라도)
4)필립·크레인 하원의원 (공화·일리노어)
5)제레미아·덴톤 상원의원 (공화·알라바마)

이인주신부 서품

캐나다에서 탄생한 제2호 한인신부

캐나다에서 서품된 제2호 한인신부가 탄생했다.

지난 11일 토론토시내 세인트·마이클대성당에서 카터추기경과 5명의 보좌주교에 의해 공동집전된 서품식에서 이인주부제(본보5월11일자 참조)는 3명의 백인신부와 함께 서품받았다.

이신부는 윌슨에비뉴의 세인트·마가렛성당의 보좌신부로 부임했으며 12일 첫미사를 집전했다.

◆이인주 신부

한인본당의 집전미사는 19일 하오1시 세인트·폴성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부흥성회

순복음카나다교회

순복음카나다교회(담임목사 조이식)는 오는 7월8일(금)부터 10일(일)까지 3일간 최자실목사가 인도하는 대부흥성회를 갖는다.

현재 세계최대교회인 순복음중앙교회와 순복음금식기도원의 창립자인 최목사는 동교회당회장인 조용기목사의 장모이기도 하다.

토론토집회에 앞서 최목사는 7월6·7일 양일간 순복음몬트리얼교회(담임목사 이은종)에서 부흥회를 갖는다.

최목사의 저서로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금식기도의 능력」, 「Korean Miracle」등이 있으며, 칼리포니아 바이블 칼레지서 명예신학박사를 취득했다.

부흥회 문의는 전화 (416)745-3884로.

박요한신부 부임

토론토성공회 한인교회

토론토성공회 한인교회(151 Glenlake 소재 St, Martin교회)는 6월첫주일부터 박요한신부(46)를 신임사제로 맞았다.

동교회는 그간 한인교회를 사목할 사제를 구하고 있던 중 세인트·알반스(St, Albans)교회와 한인교회를 동시사목할 박신부를 맞게된것.

박신부는 토론토에 오기전 하와이에서 6년이상 성누가교회에서 시무하여 특히 가정상담, 노인문제상담등에 중점을 두고 사목활동을 해왔다.

한국에서는 부산동래온천 성베드로, 서울동대문 성바오로교회를 사목했으며 64년도에 부제에 서품되었다.

현재 한인성공회는 80여명의 신도가 예배하고 있으며 새 신부의 부임과 함께 활기를 띄게 됐다.

박 신부의 연락전화는 654-5657이며 신도회장인 최호영씨의 전화는 277-4580이다.

◆박요한 신부

교회단신

●새예루살렘교회(김승환목사) : 19일(일)부터 굳멜목사의 인도로 특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순복음토론토교회(이필주목사) : 최근 월간선교지 「카리스마」를 발간했다. 무료인 동지의 구독신청은 전화 889-6194, 247-9577, 881-7162.

●벧엘교회(최상봉목사) : 6월28일(화) 부터 어린이 여름학교를 갖는다. 또한 7월11일 부터 1주일간 전교인 수양회를 가질 예정.

●한인교회(반병섭목사) : 29일(일)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갖는다.

●한인장로교회(박회민목사) : 19일(일) 전교회 야외예배를 이슬링턴 북쪽 보이드 컨서베이션 파크에서 가지며, 교인친선 각종대회를 갖는다.
동교회 사회위원회에서는 6월1일 부터 하루1시간씩 토론토언어훈련소에 2명의 교사를 파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인감리교회(박준하목사) : 12일 세인트·죠지 캐나다교회와 연합예배를 갖고 고유한 한국음식으로 친교를 나눴다. 약200여명의 캐나다인들이 잡채, 만두, 갈비등을 시식. 한편 동교회 교회학교는 오는 7월5일부터 4일간 연합수양회를 콜링우드에서 갖는다.

●한인천주교회(최규식신부) : 신간도서가 대량입하되어 구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빌려볼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다. 문의전화는 863-0415.

●제일한인장로교회(김용출목사) : 지난12일 교육관준공기념예배를 가졌다. 또한 16일 부터 19일까지는 교육관준공기념 부흥성회에 옥치상목사(부산 성동교회)를 강사로 갖는다.

◆최근 남부아프리카 각 지역은 가뭄과 정치혼란, 전쟁과 내란으로 기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레보아지역은 지난 3년간 비한방울 구경할 수 없었으며 150만명 이상이 무주택으로 질병과 기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비공식집계로도 1년에 약 10만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이 지역내에서 사망하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宗教와 美指導者

◆기도하는 레이건 대통령—역대 미대통령에게 있어 종교만큼 민감한 방응을 불러일으켜준 잇슈도 드물었다. 너무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또 너무 소홀해도 비난이 뒤따랐기 때문. 현직 레이건대통령은 이에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평. 일요일 교회엔 잘 안나가지만 스피치마다 「God Bless You」는 빼놓지 않는다. 〈UPI〉

미국의 대통령들은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갔을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역대대통령중 철저한 무신론자는 한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점을 볼때 대다수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립전쟁이래 미국의 대통령과 「교회다니기」와의 관계만큼 대통령에게 민감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가져다준 다른 문제들은 거의 없었다.

레이건대통령도 정책을 발표할때나 심지어 동서간의 무기경쟁을 설명할때 까지 "신의 은총이 있기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를 도울것"이라는 등 기독교적인 꼬리를 즐겨 붙이고 있지만,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다.

이에대해 백악관측은 암살미수사건후 강화된 삼엄한 경비와 비밀경호원으로 인해 교회집회가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레이건은 그렇게 독실한 신자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일반시민은 경호때문에 발생하는 제약들을 견딜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레이건대통령의 측근인 제리·파웰목사도 "레이건은 일요일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치 않아 공동예배에서 얻는 혜택을 빼앗기고 있다"며 대통령을 찾아가 교회에 자주 나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몇년전 대통령후보로 나설 당시엔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타나던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서자 「경호문제」를 내세워 정기적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비아암살단」이 온다는 소문이 퍼진후에는 경비를 2중 3중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종교적인 열성여부나 태도로 인해 정치적인 댓가를 많이 지불했으나, 레이건은 교회에 잘 다니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인 희생을 별로 치르지 않고 있다.

미시간주의 정치·철학교수 리차드·모우는 "레이건은 종교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특히 레이건이 정책발표나 설명에서 자주 사용하는 종교적인 액센트로 기독교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더우기 레이건은 근대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이혼경험이 있으나, 가족주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이혼경력때문에 정치적 희생을 당하지 않고 있다.

教會다니기「눈치作戰」

「믿음」에公共의監視의식 혼합된 信仰 나타내기도

한편 대통령과 종교의 민감한 관계는 초대대통령인 조지·워싱턴에서부터 시작된다.

워싱턴은 독립헌법에 종교적이 냄새가 풍기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자 재빨리 취임사에 「So help me God」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비록 독립헌법이 종교와 정치를 뚜렷히 구분해 놓았으나, 워싱턴과 토머스·제퍼슨은 종종 종교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받았다.

성직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제퍼슨은 일요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했다.

그러면 때로 의심스런 표정으로 국민들이 묻곤했다.

"대통령각하 어디가십니까?"

"교회에 갑니다"

"아니, 대통령께선 성경말씀을 하나도 안 믿으시는줄 알았는데요……"

"종교가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도, 다스릴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를 시인할 수 밖에 없군요"

역대 대통령중에는 임종시에가서야 세례를 받은 대통령도 있었다. 율리시즈·그랜트는 비록 일요일마다 부인에 강제로 이끌려 교회에 나갔으나, 종교에 관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후에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멜때 겨우 감리교도의 세례를 받았다.

이에비해 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 대통령취임 2주만에 장로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침례세례를 받았다.

반면 백악관의 주인공중 종교에 대해 가장 강한 집념을 보인 대통령은, 테오도어·루즈벨트이다.

각 대통령마다 백악관에서 종교의 상징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역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취급했지만, 루즈벨트는 언제나 철저한 크리스챤임을 내세웠다.

그는 일요일마다 개신교회에 나가 남들보다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으며, 종교적인 열정으로 1센트짜리 동전에 「In God We Trust」라는 글자를 새겨놓기도 했다.

비록 후에 천둥같은 공공의 반대에 부딪쳐 지나친 「열정」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지만……

흔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믿음」에 공공의 감시를 의식해 혼합된 신앙을 나타내기도 했다.

존·아담스대통령은 "나는 76년간 마치 교회다니는 동물(?)처럼 행동해왔는데, 이것이 내 「위선의 증거」로 지적받았다"고 스스로 표현했다.

레이건대통령도 종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캠페인동안에 항상 국민학교에서 진화론뿐 아니라 종교의 창조론도 함께 교육돼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대통령들은 자주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사임하기 직전에 당시 국무장관인 헨리·키신저와 함께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는가 하면, 아예 백악관내에 「기도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애브라함·링컨도 닉슨보다는 덜했지만 부인의 요청으로 자주 무릎을 꿇었으며, 특히 뚜렷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중대사를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다.

가장 열성적으로 무릎을 꿇은 대통령은 러더포드·헤이스였다. 그는 부인과 함께 매일아침 새벽기도를 드렸고, 특히 그의 부인 루시여사는 백악관내에서 반 기독교적인 「음주」, 「흡연」, 「댄싱」을 금지시키고 술대신 주스만 마시기로 해 「레모네이드·루시(레몬주스만 허용하는 루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반면 기도에 게을렀던 대통령으로는 제임스·메디슨이 손꼽히고 있는 그는, 일요일 교회를 자주 빠졌으나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성경·찬송가·성화

기독교 서적 다량 입하

□각종 마춤액자 즉석에서 해드립니다.
□전시회·상업용 액자 다량주문시 특별할인

교회용 성경·찬송가 다량 주문시 특별할인

운파 이정복선생님의 각종 동양화·유화·초상화 취급

549 BLOOR ST.W.

☎ : 532-7909(B) 749-7493(R)

이 준 관

한국일보

野、모든「民主化문제」擧論키로

民正·民韓·국민 임시國會 대책腐心

與 "解禁案 반드시 봉쇄"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은 13일 소집되는 제1백17회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院內對策委와 의원총회를 각각 열고 이번 국회에서의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民韓·국민등 야당은 이번국회에서 政治被규제자解禁案을 제안,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세운데반해 民正黨은 이를 봉쇄하기로 결정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民正黨

民正黨은 이날 하오 院內對策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장, 제출할것으로 보이는 정치被규제자해금 건의안은 이미 被規制者중절반가량이 解禁됐기 때문에 解禁이 전혀되기 이전의상황과는 달라 야당측 주장을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구속학생문제를 제외한 졸업定員制등 學事행정문제는 與野간에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이번 국회를 통해 現政局의 主役은 在野가 아니라 제5공화국에 참여하고있는 정당과 政派임을 정확히 인식시키도록 노력키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치被규제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도 나왔는데 일부 의원들은『법을 어긴 犯法행위를 국회에서 정치의안으로 수렴하는것은 타당치못하다』고 말해 피규제자의 정치활동에대해 경우에따라 法적용문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民正黨은 이날 국회에계류중인 40여개의 案件과 정부가 제출할 40여개의안건중 20여개를 이번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일단 심의는 벌인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民韓黨

民韓黨은 이날상오의 院內對策委와 하오의 의원총회에서 金泳三前新民黨총재의 斷食과 학원사태등으로 빚어진 時局문제를 집중 擧論키로했다。

民韓黨은 이와관련, 정치피규제자의 추가解禁건의안과 학원사태수습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문제를 정부의 國政보고와 답변을 들은뒤 결정키로했다。

民韓黨은 이와함께 언론의 活性化、구속자 석방문제등 모든 문제를 국회로 수렴하여 관철시키기로 하는한편 계류중인 國會法 언론기본법 地自制실시문제등 政治議案의 관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議總에서 金泳三씨 斷食사태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이사태가 그동안 보도되지않은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在野의 주장을 院內로 수렴해야한다는 전제아래 정치피규제자에 대한 전면 解禁의 早期실현, 학원사태의 수습책의 일환으로 구속학생들의 석방과 復校문제등을집중거론키로 했다。

이날 柳致松총재는『與黨은 현時局을 안이하게보고 있는데 이번국회에서는 현시국을 보는 눈부터 與黨에 제시해야한다』면서『만일 정부 與黨이 국회가끝날때까지 民主化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沈憲燮 朴完奎 韓光玉 金炳午의원은 제1野黨으로서 黨의 進路문제를 제기하면서『최근 金泳三씨의 斷食, 학원사태등 현시국과 정치상황의 責任은 우리야당에도 있다』고 自省을 촉구하고『모든정치의안은 이번국회에서 모두 해결되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당

국민당은 이날 상오 총재단 정책위원단 총무단 국회상임위간사들이 참석한 원내대책위원회를열고 金泳三씨의 단식이후의政局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하기위해 野圈이 공통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당은 특히 이날회의에서 본회의 對정부질문을 통해 金씨의단식과 학원사태등 모든정치현안에 대해 집중추궁키로 하는한편 계류중인 언론기본법과 地自制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분명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被규제자 해제건의안을 野圈이「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民韓黨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議政同友會와 공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고 民正黨의 동의를 촉구키로 했다。

국민당은 11일 상오10시 의원총회를열고 이날 원내 대책회의서 마련된 임시국회대책을 최종 결정키로했다。

民韓, 질문자 選定

民韓黨은 이번 임시국회의 본회의 對政府질문자로 정치분야에서 辛相佑부총재, 경제분야에 金承穆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密談·대표演說 경청

임시국회를 앞두고 與野는 각각 국회대책마련에 腐心하고있다。사진㊧는 民正黨원내대책회의도중 密談을 나누는 權翊鉉사무총장과 李鍾贊총무。㊨는 民韓黨의원총회벽두 인사말을 하는 柳致松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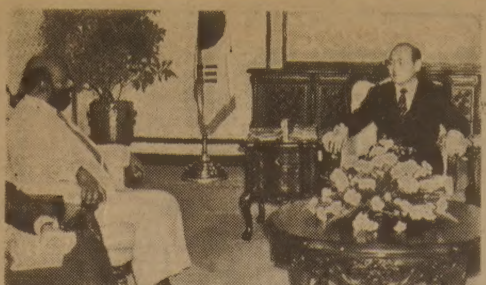
不法 입국한 韓國人 日、1백명 強制송환

오는 7월20일께

일본정부는 현재 오오무라(大村)수용소에 수용중인 한국인 不法入國者 1백명가량을 오는 7월20일께 우리나라에 송환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한 소식통은 10일 일본정부의 이같은 통보사실을 확인 하면서『駐日대사관 관계자가 10일 오오무라수용소에 가서 不法입국자들의 國籍과 密航경위등을 조사중이나 1백명線이 되는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제송환되는 不法입국자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旅券이나 航員수첩을 받지않고 密航알선업자들의 소개로 密入國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80년이후 10차례에 걸쳐 1천2백38명의 不法入國者들을 송환한바있다。



IPU 執行委員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대통령은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국제의회연맹(IPU)의 발리플랄·나라담비·나바라트남집행위원(스리랑카국회의원)을 접견하고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吳世應정무장관과 馬炳奎국회사무총장이 배석했다。

OAU議長에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10일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제19차 頂上회의 의장으로 피선된이디오피아의멩기스투·하일레·메리암의장에게 당선축하와 함께 아프리카의 단결과 식민주의및 인종차별주의의 철폐를 위한 OAU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내용의 電文을 보냈다。

日·中共항로 8월4일開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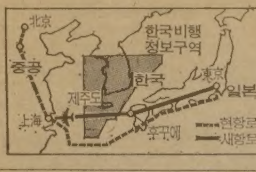
한국情報구역 通過 中共機는 日서 管制

交通部발표

교통부는 10일 한국 日本 中共 3국의합의에따라 濟州남방의 한국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일본 후쿠에(福江)와 上海를 잇는 직선항로를 오는8월4일부터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직항로의 개설로 日·中共항로가 1백71마일 단축되고 비행시간도20분줄어들게된다。

이직선항로를이용하게 될 항공사는 일본항공, 중공민항, 팬암, 파키스탄항공, 이란항공등 5개 항공사로 주70회비행하며 종전우회항로에 비해 이들5개 항공사는 모두 연간 7백만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하게된다。



社告

스포츠寫眞年鑑 첫출간

83年版 컬러로 再現된 긴장과 感激의 현장

한국일보와 日刊스포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포츠寫眞年鑑을 출간, 시판에 들어갔읍니다。83스포츠寫眞年鑑은 한국의 스포츠 歷史를 추적하면서 여기에 상응한 寫眞과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한눈으로 볼수있게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자부합니다。현대사회의 가장큰 특징중의 하나는 스포츠의 생활화로 스포츠는 즐기는 단계를 넘어 참여하는 스포츠、알고 이해하는 스포츠로 바뀌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 스포츠年鑑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해 졌읍니다。日刊스포츠는 국내 최고의 스포츠專門紙로서 이와같은 시대적요청에 부응하기위해 스포츠종보적인 寫眞年鑑을 펴내 한국스포츠의 영광과 고뇌, 긴장과 감격의순간과 현장을 낱낱이수록, 鳥瞰토록 했읍니다。내용은 ▲82년도 국내외 각종 경기▲86아시안게임·88올림픽게임 준비상황▲近代한국스포츠의 발자취 ▲人物로본 體育1백년 ▲附錄에는 한국스포츠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각종자료를 정리했읍니다。菊倍版 호화洋裝 3백50페이지로 편집된 이 年鑑은 컬러사진 2백10장 단색사진 2백15장을 精選수록、감격의 순간을 재현시키고 있읍니다。日刊스포츠는 해마다 더욱 알찬 스포츠寫眞年鑑을 펼쳐낼것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體育 100年 한눈에

350페이지호화洋裝

▲공급문의처=한국일보出版局 ☎722-4372
▲釜山營業所=☎42-1453
▲값=30,000원

한국일보·日刊스포츠

金正日 이달초 北京방문

外交官들 "中共、北傀세습 認定"

【北京UPI=聯】북한 金日成의 아들이며 명백한후계자인 金正日이 6월초 北京을 방문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10일 밝혔다。

北京외교관들은 아마도 지난 2일로 추정되는 金正日의 訪中은 북한의 권력세습을 중공이 승인하는 또다른 신호로 해석하고있다。

외교관들은 북한노동당서기인 金正日이 北京을떠난뒤 중공동부의 관광도시 杭州로 갔을 것이라고말했다。

중공관리들은 金正日의 방문사실과 현재도 체류중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대해 외교관들은 중공이 세계최초로 탄생될공산王朝의 권력세습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싶지 않기때문에 비밀에 붙이려한다고 보고있다。

毛澤東 개인숭배를 비난하고 있는 현재의 중공은 이제까지 金日成에대한 과잉숭배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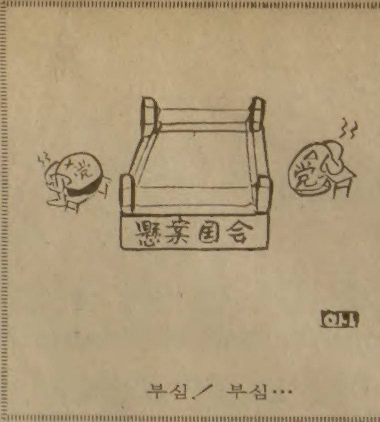
日 새通産相에 宇野의원 임명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 일본수상은 10일 과로에 의한 당뇨병으로입원중인 야마나까(山中貞則)통산상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같은 나까소네派인 우노·소스께(宇野宗佑)(60)自民黨 간사장대리를 임명했다。

우노의원은 科技處장관, 방위청장관을 역임했다。

가로쓰는 社說 2면에

社會漫評



부심/ 부심…

임시國會 召集공고

蔡汶植국회의장은 제1백17회임시국회를 오는13일 소집한다고 10일 정식공고했다。

地平線

文學界·經濟界 연석 간담회가 9일낮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있었다。「서로 알려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서로 이해해야할단계에 와있으며…」그런 취지의 모임이었다고 한다。물론 좋은 일이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게 이상할것없지만 文人에게는 文人나름으로의 긍지로운 길이 있고、經濟人은 또 그나름대로의 보람있는 길이있다。이 두갈래 길은 좀체 공통성이랄까、共感帶를 가지기어렵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서는、이번 모임이 하나의「異例」로 보아지기도한다。

▼文人은 그나름의 作品을활며、그 속에 온 인격과 感性을 쏟아 넣는다。독자들의 공감 이나 환호를 못받아도 외로움을 모르는 의연함과 때로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긍을 지닌다。그와는 다른 뜻이지만、經濟人도 作品을 판다。제품을 만들며 소비자 기호에 호응하는 경영전문가로서、혼신의 힘을 다하고 머리를 짠다。당연한 긍지가있을 터이다。

▼이같은두갈래긍지가부딪쳐서、文人이經濟人을질시하고、經濟人이 文人을 경시하는 풍조가있다면 갈등만 深化된다。서로 이해하고 對話하고 調和를이루는데서 눈에 안띄는 生産性이 생긴다。그래서 이번 모임을 긍정하고 싶다。

▼그러나한편으로는、텔리비전의 경제드라머「야망의25時」가 곡절을겪다가途中下車하는 마당에、文人과 經濟人의「理解관계」를 추구한다는것이 자칫、「利害관계」로 변질한다면、그런 모임은 한갓 해프닝으로 그친다。어디까지나「사람」과「사람」의 만남이어야지、「돈」과「글」의 만남이라면、웃지못할 우스개다。「集團맞선」같은 모임의 형식이 그런지레 걱정을 낳게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한인최초의
CUT FLOWER
도매상
오직 주문에 한합니다
주문일자 6월15일(수)부터
CUT FLOWER만 취급
(화초는 취급 안합니다)
철저한 신용과 친절봉사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Mr. 리)

취재사진을 원하십니까?

본사가 취재차 촬영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무료로 드릴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사는 6월1일부로 아래와 같이 실비 수수료를 책정 했아오니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의껏 사진을 제작, 우송하겠읍니다. 본사에 오셔서 필림을 보시고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장면의 사진을 요청하실 수도 있읍니다.

○8" X 10" 1매당 $3.00
○5" X 7" 1매당 $2.00
○송료 : $1.00 (매수불문)
○전화 : (416) 533·2361

□담당 · 김영철 기자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 · 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英、保守黨 압승

3백52명當選…過半數 훨씬넘어

【런던UPI聯=聯】마거리트·대처수상이 이끄는 保守黨은 10일 개표된 英國총선결과 당초예상대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保守黨은 이날하오5시(韓國시간)현재 당락이 판명된 5백71개의석중 3백52석을 차지함으로써 6백50석의 전체의석중 과반수를 돌파하고도 14석이상의 여유를 확보했다.

그러나 勞動黨은 당락이 판명된 5백48개의석중 1백99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특히 勞動黨과 거의 대등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됐던 自由·社民연합(SDP)은 겨우 17석확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대처수상은 자신의 당선과 保守黨의 압승이 확인된후 런던북부의 지역구 핀출리에서 가진 연설을통해 『다음 임기를 커다란책임감과 겸양의 정신으로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 총선은 역사적인 선거였으며 이같은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수상측근소식통들은 대처수상이 11일새벽(현지시간) 개각을 발표할것이라고 전했다.

"對韓關係개선 최대努力"

홍콩誌、나까소네 外交·國防긴밀히

【홍콩=聯】나까소네수상이 영도하는 現일본정부는 한국과 외교및 방위면에서 지난 어느때보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개선하려 노력하고있는 정부라고9일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가분석했다.

이 英字주간지는 이날발행된 최신호 특집기사에서 나까소네수상은 집권한지 불과 6개월만에 그의 국내정치기반이 비록 빈약하고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수상보다 정력적으로 한국을비롯한 미국·東南亞국가지도자들및 국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이룩했다고 보도했다.

이잡지는 또 나까소네수상은 韓國방문을통해 이같은 열정을 과시했다고 전제, 그는 美國방문에 앞선 韓國방문계획에 대한 외무성의 반대를 단호하게 뿌리쳤었다고 밝혔다.

中共、공중機動훈련

史上최대규모 20萬병력 參加

【北京AP=聯】중공사상최대규모의 공중 기동훈련이 지난6일중공중부지역에서 실시됐다고 중공TV가 9일 보도했다.

중공TV는 이날 편대비행과 낙하산하강등 훈련광경일부를 보여주면서 참가부대는 中共中部 湖北湖南등 중부지방을 관할하는 武漢軍區소속이라고만밝히고 참가병력수및 동원전투기수는 언급하지않았다.

이방송은 이에대한 간단한 논평에서 中共軍은 「엄격한 조직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역설하고 이훈련에는 武漢軍區사령관 周世忠、人民解放軍부사령관리·용태등 고위 軍간부들이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이공중훈련은 최근 중공당국이 인민해방군장비현대화와 軍장교의 수준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시된 것이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에 北京軍區보병부대와

難破 여객선惨事에 蘇當局 엇갈린發表

볼가江철교와 衝突 死亡 4백명넘을듯

지난5일밤 소련 볼가江에서 철교와 충돌、난파된 여객선 알렉산더·수보로프號위로 다시 화물열차가 추락하면서 덮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크게늘어났다고 인근 울리아노브스크市의 한 주민이 8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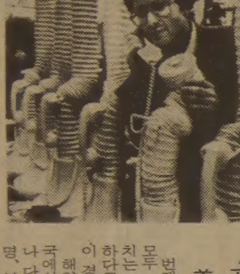
소식통들은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총사망자수가 4백명이 넘을것이라고 보고있다.

모스크바의 한 친척에게 전화로 이러한사실을 전한 이주민은 생존자가 불과 40명정도였다고 말했는데 사고여객선은 4백68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태울수 있다.

또한 소련국내여행사의 한대변인은 수보로프號가 철교를 들이받는순간 4층으로된 배의 꼭대기 갑판에서 영화를보던 많은 승객들과 함께 선체가 난파됐다고 말했다. 사고직후 사망자수는 최소한 1백70명이라고 발표됐었다.

이번 사고에대해 소련정부가 발표한내용과 공산당이 사망자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는것외에 현재까지 소련언론이 보도한 특별한 내용은없다.

소련당국은 외국인이 포함되어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참사에 침묵을 지키는것이 상례였던점에 비추어 이번의 보도는 그자체도 예외적인 일이었다. 【모스크바=外信綜合】



◇늘어나는 전화기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여름철 電子상품 전시회에서 출품된 「늘어나는 전화기」의 발명자인 조엘·쉬거즈씨가 시험해보이고있다. 플래스틱 전화통에 달린 1.5m의 튜브로 보통송수화기와 다이얼 혹은 버튼이 연결된 이 전화기의 튜브는 그높낮이와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수있게 되어있다고. 【시카고8日AP섬=聯】

"골프、번개칠때 危險하다" 경고

美國 작년에 6명死亡 14명부상

번개가 칠때 옥외활동은 모두 위험하지만 골프를 치는 일은 특히 더욱 위험하다고 미국 해양대기국이 경고.

해양대기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번개로인해 숨지거나 다친사람수가 사망 77명、부상 1백74명으로 지난69년에서 82년동안의 연평균 사망자수 1백1명및 부상자수 2백45명보다 훨씬 줄었지만 골프를 치다 죽은사람은 6명、부상한 사람은 14명으로 다른해보다 많으며 번개로 인한 전체사망자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갑절이나 높아졌다는 것. 【聯】

海外토픽

中共、臺灣작품요청 출판사 選擇해發刊

中共의 한 이름난 출판사는 대만의 출판업자및작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중공으로 보내줄것을 요청했다.

중공의 우호출판공사는 英字紙 차이나·데일리에실린 광고에서 대만의 출판업자와 작가들에게 중공에서 출판할 작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나 「직접 출판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진 작품중 일부가 임의선택、출판될 것이라고 밝혔다. 【聯】

유고國歌 잘못연주로 抗議소동

西獨서 美공군군악대 착각으로

서독을 방문중인 유고국가대표축구팀이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장에서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美공군군악대가 착오를 일으켜 현재의 유고국가가 아닌 2차세계대전이전의 국가를 연주하는 바람에 유고선수단이 이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네일·노턴 美공군중령은 8일 공군군악대가 국가를 잘못 연주한데대해 유고선수단에 사과했다면서 군악대가 2차대전이전의 유고국가를연주한것은 전혀 고의가 아니었으며 대원들이 악보집에서 틀린 악보를꺼냈기때문이라고 설명.

이 해프닝으로 유고대표팀의 경기가 30분이나 지연됐다고. 【AP】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901

레이건과 만날用意

"生産的인 會談 확신이 설경우" 안드로포프

【로런스(美캔자스)UPI=聯】소련공산당 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美蘇 정상회담이 생산적인회담이 될것이라는 확신이들경우 미국의 레이건대통령과만날용의가있음을美캔자스주로런스시관리들에게표명했다.

데이비드·롱허스트 로런스시장은 빅토르·이사코프라는 駐美소련대사관 고위관리로부터 7일 이에관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소련대사관은 이사코프가 영사라고 확인했다.

이사코프는 롱허스트시장에게 안드로포프가 美蘇정상회담을 로런스시에서 열것을 제의한 로런스시관리들의 초청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롱허스트시장은 안드로포프가 로런스시 관리들의 초청에 사의를 표시하고양국간의 평화에대해 공감했으며 美蘇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었다고밝혔다.

국제 로터리클럽 89년總會 서울서

【터론토=聯】서울이 오는89년도 국제로터리클럽연차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이 클럽의 신임이사인 吳在璟동아일보사장이 9일 밝혔다.

吳사장은 이같은 결정이 74차국제로터리클럽연차총회에서 취해졌다고말했다.

을 것이라고 말했다.

◇惨敗당한 勞動黨首　英國노동당의 마이클·푸트당수가 9일 자신의 선거구의 한 투표소 앞에서부인과함께 득표운동을 펴고있다. 【런던9日AP섬=聯】

日 北部해안、또 4차례地震

秋田縣이후1,500회 餘震

【東京AP=聯】지난달 26일 발생한 強震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일본북부해안지대에 9일 또다시 두차례의 강진을 포함、4차례의 지진이 엄습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번 아끼따(秋田)縣 지진의 여진이라고 말하고 주민들에게 해일에 대비한 경계를 요망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즉각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리들은 이날지진은 도오꾜북쪽 4백50km인 아끼따縣 앞바다가 진앙지이며 하오1시37분과 7시23분、9시49분、10시4분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발생했다고 전하고 세번째와 네번째 지진은 일본지진계로 강도4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상청관리들에 따르면 지난번 아끼따縣 지진이후 1주동안 1천5백회이상의 여진이 있었으며 이중 1백89회는 감지할수 있을만큼의 강도였다.

▲陳懿鍾 民正黨 대표위원과 중앙당간부들은 10일상오 水原市迎華洞에 건립된 京畿道지부黨舍 준공식에 참석、현판을걸고 自祝했다.

人事異動

韓一銀行

▲兼務企劃部長 咸敏植 ▲審査1部調査役(部長待遇) 朴泳根 ▲兼務資金部長 林南圭 ▲管理部長 高湧熙 (9日字)

本社來訪

▲林栄洪씨(民權黨總裁) ▲崔貴泳씨(同부총재) ▲金昆中씨(同 사무총장) ▲金洪祚씨(同 대변인) 신임 인사차 ▲郭仁孝씨(리스파아르·카운셀링 專務理事) 人事次.

中共、韓國교포 訪韓공식인정

日紙보도 韓·中共개선 새조짐될수도

【東京=聯】중공은 최근 중공거주 한국인들의 訪韓을 공식으로 인정했으며 이같은 조치는 중공의 對韓人的 交流완화정책에 따라 취해진것이라는 사실이 北京소식통에의해 밝혀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北京發기사에서 中共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은 중공의 對韓人的交流완화정책에따라 이미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공의 한국인에 대한 故國방문허가가 일단은 인도적배려에서 나온것으로 보여지나 종국적으로는 韓·中관계개선에 연결될수있는 새로운 움직임으로도 해석될수 있

與"이번국회毅然하게 對處를"에 野선"과연 무엇을했는가 自省을…"

政局往來

舊與黨·舊政治와 無關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한 10일하오의 民正黨의 擴大院內대책회의는 약 1시간40분동안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黨의 기본태도를 재확인.

이날 異例的으로 참석한 陳懿鍾대표는 『5공화국헌법하의 국회의원이란 것을 모두 인식해야하며 在野등 여러문제가 국회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한다』고 당부.

이어 李鍾贊총무는 『이번 국회는 모든 정당·政派의 좌표를 설정하는 국회가 돼야하고 따라서 충격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정치력을 발휘、슬기롭게 넘어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국회는 國政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국회가 되어야지 특정사건에 매달리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우리는 舊與黨이니 舊時代의 政派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심적인 민주세력결집체임을 이번에 밝힐 예정』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제5공화국에 참여한 정당정파와 자주 대화하여 共存하는 분위기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역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被規制者의 정치활동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정치는 현실인 만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穩健論도 나왔다고.

黨員 "懸案이 무엇이냐"

한편 金泳三前신민당총재의 斷食이 그동안 떠돌던 「정치懸案」「政治관심사」임이 밝혀졌는데도 10일 상오 權翊鉉사무총장이 黨中央委 10개경제관계 分科委간부들과의 조찬에서 『정치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와 화제.

權총장은 이에대해 『정치현안은 金씨의 단식을뜻하는데 어제단식이 중단되어 앞으로 국회에서 이문제를 다룰것이다』고답변했다.

무엇을 했는지 反省을

自省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 10일의 民韓黨의원총회에 소속의원들은 종래와는 달리 異口同聲으로 정부·여당쪽으로 향해 強度높은 砲門을 열어 주목.

柳致松총재는 『이번국회는 어느때보다도 중요한만큼 우리의 意見을 가다듬는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해야할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여당은 현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것같다』고 꼬집으면서 『시국이 아무리 어렵고 해결이 어려운 국면일지라도 民韓黨은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語調를 높여 金씨 단식문제、학원、解禁문제등과 관련한 강력한 對與투쟁을 다짐.

▲林鍾基총무=그간 우리는 많은고민과 자기모순속에서도 시국수습에 主導役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 이 시각까지 임해왔다.

▲沈憲燮의원=최고의 뉴스는 진실이라는 격언이 있다. 金泳三前총재의 단식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언론기본법 국회법 地自制등 소위 정치의안이 전혀 진전이 없어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망이 어둡게 느껴진다.

▲朴完奎의원=우리는 그동안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어느정도 얻었는가. 명실共히 제1야당을 자처한다면 제1야당다운 민주화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한다. 지금 학원은 이유없는 방화을 하고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議案통과방망이소리만 들어야하는가.

▲林在正의원=정치被규제자를 전면 解禁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의지를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자. 구속학생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갖도록 거듭 촉구하자.

▲康源采의원=우리는 제5공화국의 기조와 정국안정을 다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때로는 설득 등을 통해 나름대로 우리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화정치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주장 내지 근본적인 명제를 외면해왔다.

여당은 우리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韓光玉의원=지금우리들은국민들이 우리에게 민주화작업을떳떳하게 해왔느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 대답할수있는가를 생각해봐야한다. 나는 정치적 감상주의를 경계한다.

우리는 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벌이고 있는 그 민주화작업을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수준까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본다. 이번 對정부질문은 黨을 대표하는 질의로 어느 한사람에게 난국을 타개하는 일을 맡길게 아니라 의원總意로 뒷받침하도록 하자.

社說

地域醫保 꼭 살려야한다

—열쇠는 制度改善과 財政지원

2년전부터 전국6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제2종의료보험제도가 벽에부딪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 내지 않아서 조합이 의료기관에 내야할 진료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醫藥분업이 되지않아 진료기관과 약국간에 분쟁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제2종조합의시범운영이 겪는 어려움의 主因은 보험료제도에있다. 제1종조합과 公敎조합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나, 보험료는 조합원인 ①피보험자와 ②고용주(사업장·정부)가 각각 반반씩내므로 그한도로는 보험의사회보장적인 요소를 지닌다.

이와는 달리 市·郡·區의 지역단위 제2종조합은 주민이 유일한조합원이자 피보험자이기때문에 그 보험료는 이론적으로 두배나되는 무거운 부담일 이치다. 또 제1종과 公敎조합은 世帶主아닌 조합원이 상당수 있기때문에 조합원아닌 피보험자수가 그만큼 적은데 반하여, 제2종조합은 조합원이 죄다 세대주이므로 조합원당 피보험자수가 많은 사실도 보험료수준을 높게 만드는 原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현재의 수준으로 높으면서도 赤字요인이 잠재하는터에 체납자가 많으니, 제2종조합의 벽은 두터운 것이다.

이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야말로 제2종조합의 유일한 活路다. 妙方은 오로지 公共의 재정지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보인다. 공무원등의 의료보험을 위하여 국고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제도에 비추어, 절반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고가 제2종조합에 대하여도 그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길을 터야할것이다.

일부 조합원의 체납 또는 심지어 탈퇴까지 하는 이를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 국고부담에 더하여 각조합원에 대한 보험료책정에 있어서는 비단 月소득수준만이 아니라 조합원의가족 (피보험자) 수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1종과 公敎조합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질병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것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꾀하는것이 의료보험의 목적이다. 당국은 현재제2종조합이 부딪친 어려움을 의료보험本來의 목적에 비추어 풀어나가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제2종보험의 전면적실시는 국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시범조합을 살리는 일을 시급히 서둘러야한다.

누가 山을 춤추게 하는가

한열흘전 湖南쪽 智異山 일대의 땅값이 부쩍 올라 過熱投機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그럴까—했더니, 그 진상이 밝혀졌다.

南原발 聯合통신 에 의하면 건설부가 관광객을 위한 집단시설 지구로내정한 지역의 땅 85%가 이미 외지사람 손에 넘어 갔다고 한다. 국세청조사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재작년까지 1~2천원하던 山地땅값이 어느사이 2~5만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기사에서 智異山개발계획의 정보가 누설된 듯 하다고 지적한 것은 당연한 짐작이다.

올림픽 고속도로 가 뚫리면서 智異山 땅값이 오르리라고는 누구나가 짐작하던터다. 그러나버려졌던 땅값이 금새 20배이상이 오른것은 분명 非正常이다. 그것도 개발예정지구만 꼭꼭찍어내고 있다니 기가차다.

이미 투기꾼손에 넘어간것으로 보이는 이들땅이 실상인즉 군청에서도 최근에야 통보받은 집단시설 고시예정지역이라는 데서 더욱 놀랍다.

누군가가 건설부의 예정을 미리알고 투기를 일삼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사들인 땅언저리속에다 개발『豫定線』을 긋도록 할수있으리만큼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아심마저 갖게된다.

公園개발이니 새都市개발이니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것도 마음아픈데, 개발을 핑계삼아 任意의 땅에다 恣意의 線을 획정토록하거나 그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돈벌이에 써먹는다면나라꼴이어떻게될는지걱정스럽다.

모두가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못된 행태중에 알려야할것은 쉬쉬하면서, 오히려 숨겨야할것은 뒤로 흘리는 습성이있다. 이것이 開發情報일때는 엉뚱한 피해자를 내고, 졸부를 탄생시키며, 投機를 불붙게 한다. 이것이 사회기풍에 미치는 악영향은 얼마나 클것인가.

그런만큼 智異山 開發情報가 누설된 흔적이 있다면, 山을 춤추게 한 「입」을 철저히 가려내 벌주어야한다. 그리고 관계자의 「입」단속방안도 세워야 할줄안다.

굳어진「保守回歸」

—대처首相壓勝、「위대한英國」이룰까

전후 가장 날카로운 「이데올로기선거」의 양상을띠었던 영국총선거가 예상을 앞지른결과로 끝났다. 포클랜드전쟁의 승리를 얹고나선 마거리트·대처수상의 보수당에게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표를 던졌다. 안으로는 공공지출확대를 통한 고용증대, 밖으로는 극단적인 「非核정책」을 내건 노동당에게 등을돌린것이다.

심각한 경제불황이 서독과 프랑스에서 정권교체를 가져왔던것과는 달리, 영국의 보수당은 오히려지지기반을 확대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그것은 영국민들이19세기 빅토리아시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보수回歸」 쪽을택한 결과라고볼수있다.

이로써 대처수상의 보수당은 4년남짓 추진해온「反사회주의」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기반을 다진 셈이다. 조선·항공·강철등 국영산업을 민영화하고, 국방비를 해마다 3%씩 늘리고, 경찰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더 엄격한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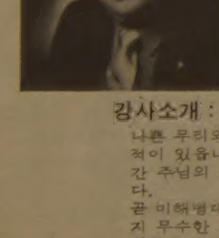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제정치무대에서서 방측의 입장은 강화될 것이다.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5개국에 배치할 5백72기의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중 96기를 받기로 공약했고, 레이건대통령의 중남미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있는 유일한 동맹 국이다.

그러나 대처수상의 예상을 앞지른 승리가 영국의 보수당에게「탄탄대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인 승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극좌파에 속하는 푸트당수의 노동당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극단적인 정책을 내걸었다는 사실의 결과이기도 하다.

22%의 인플레가 5%로 잡혔다고는하지만 6%이던실업률은 13%까지 뛰어올라 지금 3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있다. 「부지런과 자립심과 애국심과 청결」을 내건 대처수상이 「위대한 프랑스」를 내걸었던 드골만큼 성공할수 있을지는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는 경제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어쨌든 영국은 이제 「19세기의 영광」을 되찾기위해 「허리띠졸라매기」를 택했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서방세계는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와 서독의 콜수상정부를 포함해서 강력한 보수정권이 기둥을 이루게됐다. 우리로서는 강력한 방위전략과 함께 국제경제무대에서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확대균형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공동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부흥성회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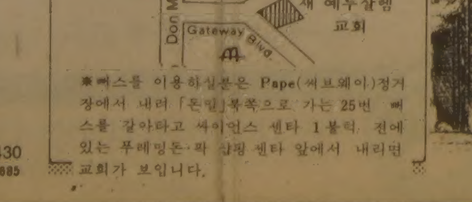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깽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불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파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PAOC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5

서울의 國際化

세계는 요즈음

曺淳煥 〈本社 論說委員〉

바깥세상으로도 그리고 안으로도 門 활짝 열려야

바깥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잘 보고있다。「中國民航局」소속 여객기 피납사건으로 서울에 떨어졌던 中國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한 말이 머리언저리에 맴돈다。그들은서울거리에서 본 한국여성들을 처음에 서양사람들로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한국여성들의 활달함과 옷차림새탓으로 그들이 머리속에 그려온것보다 월등히 세련되어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홍콩을 통해 보도된 피납승객들의 서울인상기를 읽고、서울의 국제화를 또한번 느낄수있었다。

피납中國民航機사건처리를 위해 서울과 北京정부가 재빨리 직접협상을 벌인데 대해 바깥세상은 놀랐다。심지어 이웃 일본마저 우리의 신속、유연한자세에 감탄했다。

피납여객기가 한국땅에 불시착한 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우발적인 사건이다。하지만 北京정부사람들이 사건처리를위해 서울에달려온것은 우리의도와 상관없는것은 아니다。74년6·23선언 이래 우리들은 공산국가들의 문을 두들겨왔고、서울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北京은 서울에대해 문을 닫아두었으나 잠그지는 않았다。이런 상태에서 긴급한 사태를 맞아 그들이 금방 서울로 날아올수있었다。「서울ㅡ北京통로」가 열린것이다。양국은 앞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협력을 외교각서로 못박았다。

세계는 직접협상을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한국외교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의 외교성공을 보는 외국의 논평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이 한두가지 있었다。

韓半島 냉전체제 붕괴의 시작이란 표현이 그하나다。한국과 臺灣이 정치적으로 同列視 되어오다가 한국이 이번 北京과의 직접협상으로 그同列상황에서 벗어날수있었다는 분석은 좀색다르다。

한발짝 더 나아가 北韓의 국제정치적 「臺灣化」라는 좀비약된듯한 표현까지 나왔다。

한국을 승인한 나라가 1백17국이고、북한을 승인한 나라는 1백5국이다。동시수교국은 68국이라한다。이 숫자에서 풀이하면 北韓의 정치적 위축화는 과장된 표현이 된다。하지만 국제정치가 단순한숫자풀이로 산출되는것은 아니다。한나라가 풍기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金日成ㅡ金正日의 세습왕조로 세계에주는 北韓의 이미지는 아주 나쁘다。金正日의 후계정권기반이 예상이상으로 구축되었다는 분석이나 그혈통후계때문에 그들의 외교는형편없이 제약되고 있다。

서울ㅡ北京의 직접협상에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것은 평양일것이다。그 평양은 직접협상중 침묵을 지켰다。작년가을 소련의 타스통신기자들에 이어 문화성고관이서울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을때 北韓은 소련을 신랄히 공격했었다。그런 평양이 北京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켰을까。피납여객기사건이 그들 제일의 우방에 어쩔수없이 발등에 떨어진불로 이해한데서 가만히 지켜보았을까。그런것만 같지는 않다。사건이 일단락된후 北京정부의 吳學謙외상이 평양을 방문하고나서 金正日의 北京방문설이 北京외교소식통으로 계속 흘러나오는것이 이물음에 한 해답을 준다。

金日成ㅡ金正日부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슨 연방제나 통일이 아니라 혈통정권을 굳히는 일이다。10년가까이 닦은 金正日의 후계정권을 더욱 굳히고、북한사람들에 남아있는 반발을 없애는 최선의 길이 金正日의 北京방문길이라고 그들 부자는 생각하는 모양이다。명분이 있을수없는 그래서 공산권으로 부터도 빈축을 사고있는 金正日의 정권계승에、北京정부가 그들 北韓의 지도자로 맞아 인정해주는것 이상으로 金부자에 효험을 주는것은 없다。평양이 서울의 직접협상에 말문을 닫은것은 그대가로 金正日의 北京나들이를 수락하도록 밀어붙이기 위한것이라고풀이해 봄직하다。

60、70년대에中·蘇대립속에서 그런대로 모스크바와 北京을 견제해온 이른바 金日成의「主體路線」이 세습왕조굳힘으로 옮겨져 졌다。이견제력의 위력축소를 누구보다잘 터득하게된 北京이기에 30여년간의 단절의 벽을 넘어 서울에 쉽게 대표단을 파견할수 있었는지모른다。

서울의 한 서방외교관은 서울의 직접협상성공과 IPU (국제의회연맹) 서울개최를 저지하려던 北韓의 노력이 세계에 추문만 던지고실패한것을 이렇게 분석했다。『북한지도자들은 아마도 연일 중대회의를 열고있을것이다。그들의 고민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세계에 주는 南北韓의 이미지의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이같은 北韓견제력의 약화와 이미지폭락은 韓半島장래문제에 變數로 작용하게 된다。우리는 이 變數를 韓半島평화정착、평화제도화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南北韓간의 대립경쟁에서 시간은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편으로 기울고있다。

80년대후반은 韓半島에 평화가 정착될수있는 시기로 매우 중요한 때다。서울의 국제화를 세계모두가 공인하게 되는 올림픽도 그무렵에 열린다。

韓半島평화제도화가 이른바 교차승인을통해 이룩되어가야 한다는데 世界는 그렇게 異論이 많지않다。北韓은 韓半島분단을 고정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오고있다。中·蘇는 교차승인의 원칙 그자체에 반대하기 보다 아직 그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韓半島냉전체제 붕괴시작의 뜻은 그변화에 장기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말이 된다。교차승인만 하더라도 강대국관계의 극적변화에 기대고만 있을수는 없다。그에 앞선 교차교류를 통한 국제환경조성에노력해야 할것이다。「교차승인을 하는나라는南北韓과 美·蘇·中·日이나그환경조성의 주역은우리들이어야한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냉전체제붕괴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냉전시대의 사고·잔재·용어들을 파묻어야 할것이다。

우리 개방사회의 특성이 사회안정도에 발맞추어 더 뻗어나가야 할것이다。

바깥세상으로 문이 열려있을뿐아니라 안으로도 활짝 열려야 한다。그것이 제5공화국의 강점이되고있는 외교에 더위력을 주게될것이다。

메아리

學生症

〈대학생이 교수를 칼로찔렀다。학교안에서였다。교수는 숨졌다。대학생은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일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11월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줄거리다。가해 대학생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상급심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학교당국과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는보도(한국일보9일자7면)가 나오고있다。기사에 간단히 인용된 원고측소장에 의하면『학교측이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를 복학시킨것은 중대한 과실이며、가해자의 병력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치료를 계속하지않고 등교시킨 부모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같은날 신문의 1면에는、대학의학기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당국 발표도 실려있다。내용은、요컨대 여름방학이 배로 늘어나 12주로 되고、겨울방학은 10주에서 8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이런 저런 까닭과 목적도 있겠지만、근래에 이루어지고있는 대학제도 개선들은 모두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주목할만하다。중요한 변화가 자주、그리고 불쑥불쑥 던져지고 실행된다。

같은날 신문에 보도된 이 두가지사건ㅡ7면의 민사소송과 1면의 제도개선은、실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것이다。억지로 관련성을 찾는다면、민사소송사건의 배경이 된 살인사건이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제도의 개선 또한 대학의 학기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대학』이라는 우연한 공통점을 발견할수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따라서 그 두가지를 내용에서까지 굳이 연결시킴은 무리하고 자의적인 일이된다。

다만 두가지 보도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은、지난달 미국의대학들을 여행하면서 흔하게들었던「스튜던트·쇼크」에 관한 것이다。대학의 카운슬링·센터를 맡고있는 임상심리학자、또는 정신과의사들은、미국대학생사회에는 지금「대학생증세」라고 이름붙일수밖에 없는 광범한 정신증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예를들면 이런 증상이다。

ㅡ특히 여자대학생들 가운데는「대식증」이 유행한다。코넬大3년생인 E양의 경우 한달에 두차례 먹자판과티를 열고『돼지처럼』먹어치운다。피차、케이크、아이스크림、포테이토칩、과일등을 정신없이 먹고마신뒤 기숙사에돌아와 토한다。

ㅡ자살과 폭력이 늘고있다。대학마다 자살의 명소가 생겼다。미시간大에서는 82학년도에만 교내의 한 장소에서 3명이 자살했고、코넬大에서는 자살예방강좌를 개설했다。

ㅡ전공을 자주 바꾸는 학생이 늘고있다。UCLA에서는 82학년도 한해에 4천7백37명이 전공을 바꿨다。이것은 3년전에 비해 77%가 늘어난 것으로、이대학사상 최대의 이동이다。올해 USC를 6년만에 졸업한 K양은 전공을 네번이나 바꾼끝에 경영학사학위를 받았으나 까닭없이 우는 버릇이 생겼다。

ㅡ대학마다 카운슬링·센터의「손님」이 급증하고 역할이 커졌다。호소하는 내용은 주로 우울·불안·편두통 증세와、음식과 수면의 부조(不調)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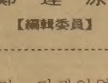
『증상』을 말해주는 예는 아직도 많다。공통되는 것은、대학생이 되면서 받기시작하는 충격과 스트레스가 이런『증상』들의 원인이라는 점이다。충격과 스트레스는 공부의 압력、취업기회의 불확실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비싼 학비、가족의 경제적희생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겹쳐 일어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진단은 미시간大 카운슬링·센터의 해럴드·콘소장이 말하는『인생에서 앞서가는 유일한 방법은「잔인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도록 가르치는 우리의 교육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그같은「잔인한 경쟁」의 풍토가 어찌 미국만의 것일까。

그같은「스튜던트·쇼크」가 어찌 남의 이야기이기만 할까。

제도의 개선이 정작 눈을 두어야할 곳은 어디인가를 곰곰 생각하게된다。



鄭達泳 【編輯委員】

世界의 社說

아라파트、試鍊견딜지 疑問

●워싱턴·포스트(美國)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은 부하들과 접촉을 유지하기 보다는 신문기사에 더 관심을 갖고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PLO의 주요구성세력인 동시에「온건파」로 알려진 파타그룹내부에서 도전을 받고있다。그가 이같은 시련을 이겨낼수 있을것인지、또 이겨낸다해도 과거와같은 지도력을 가질수 있을지의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위 팔레스타인人들의 친구라는측들은 팔레스타인人들에게 이스라엘人과 함께 살도록 권고하는것은 부당하다느니 가증스럽다는등 불평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팔레스타인人들은 누가 과연 진정한 친구인가를 물어야한다。

일부 팔레스타인대표단체가 自民族의 운명을 이스라엘과 동료아랍국가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이스라엘에 도전할만한 시기는 지나갔다。

美、니카라과報復 賢明찮아

●뉴욕·타임즈(美國)

니카라과가 美國외교관3명을 추방함으로써 2개의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니카라과가 비난하고 나선것처럼 미국이 니카라과 각료암살기도에 관련됐는지의 가능성은 있음직하지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할수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니카라과의 이러한 비난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그 보복으로 니카라과와의 외교관계를 전면단절한다면 그것은 현명치 못한일이 될것이다。

현재까지 레이건행정부는 駐美니카라과영사관6개소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이는 니카라과의 美외교관추방조치보다 심한것은 아니다。하지만 한단계 더 나아가 미국정부가 大使관계마저 단절한다면 그것은 화풀이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연락채널의 두절밖에 안될것이다。

미국이 對니카라과외교단절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오래전 모스크바와 北京、특히 아바나에서 얻었어야할 교훈을 곧 다시 얻게될 것이다。

自民黨결함 現정부서 續出

●마이니찌·데일리·뉴스(일본)

日本집권 自民黨은 衆議院에서 차지하고있는다수의석에 힘입어 지난 3년간 방자하게 행동해왔다。

나까소네 내각의 출범이래 이같은 상황은 바뀌었다。나까소네정부는 한때 표면적으로는 改憲과 軍備증강을 지지하는듯한 강경노선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이 일본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나까소네수상은 그의 語調를 낮춤과 동시에 그의 입장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했다。

그는 국내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해왔으나윌리엄즈버그 회담에서는 그의 입장을 종래의 강경노선에로 되돌려 놓았다。

自民黨의 계속 집권으로 야기되는 결함들이 나까소네 정부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45年이래의 大勝

英총선「처칠의 옛榮光」대처에

佛사회당 失政도 영향

保守일색의 새內閣 균형상실 우려도

◇여유있는 勝利의 微笑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9일 남편 데니스·대처、아들 마크군과함께 자신의 선거구인 런던北部 핀칠레이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던중 기자들을 만나고있다。【런던 9日AP聯合=聯合】

◇英 하원선거결과 (10일하오7시현재)

정 당	前의석	확보의석	지지율(%)
보수당	334	352	42·0
노동당	239	198	29·3
사민당	29	자유사민연합 17	25·6
자유당	13		
기 타	17	4	2·3
미 정		79	
총의석	635	650	

철의 여인 마거리트·대처가 다시 다음 4년동안 런던 다우닝街 10번지의집주인이 됐다。

9일 실시된 영국하원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보수당이 6백50석의 의석중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휩쓸고 차기정권을 이끌게 된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처가거둔 승리는 1945년 전시선거에서 윈스턴·처칠이 노동당의 클레먼트·애틀리와 겨루어 압승한이래 최대의 승리로 기록된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노동당과 자유·사민중도연합은 3백만명의 실업자를안고있는 영국의 경제난국과 국방정책등 失政을 들고나와 대처를 몰고 늘어졌으나 대처에대한 유권자들의 인기는 변함이 없었다。

대처의 승리는 사실 정책대결에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에 의한 개인적 인기회복과 ▲물건너 인접국 프랑스 사회당、미테랑정권의失政등에서 힘입은 바 크다。

포클랜드전쟁이 일어나기전、대처의 인기는 유권자의 25%에 그쳐 축처진 경제만큼이나 최악의 수준을 맴돌았다。전쟁에서 승리하자 그의인기는 59%로 치솟아 오르고 사람들은 대처가 처칠만큼이나훌륭한 인물로 해낼 능력을 갖춘지도자라고 생각하게됐다。그때부터 대처의 인기는 좀처럼 44%선을 웃돌게 유지돼왔다。

「영국이 결코 기울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자존심을 심어준 대처의 포클랜드전쟁을 헐뜯어 노동당은 큰 손해를 보았다。포클랜드전쟁은「도살전쟁」이었다는것이 노동당의 주장이었지만 이것은 결국 大英帝國의 긍지를 새삼 느낀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헐뜯어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노동당의 이같은 공격에『정치적 품위를 넘어선 행위』로 대처는 맞받았으나 그는결코 포클랜드전쟁의 공로를 유권자들에게 내세우지는 않았다。그는 처음부터 자신만만했으며 그런 대처에게 유권자들은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됐을 것이다。

프랑스 미테랑정권의 失政에서 사회주의 간판을 건 정당에 건 유권자들의 환상이 어떻게 깨지는가를 영국유권자들이 간접체험한 것도 대처의 승리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을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을「불구대천의 원수」로 낙인찍은바있는 대처는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레이건미국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對蘇강경책을 자신있게 밀고나갈것이 예상된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단결을 모색하면서 제네바군축협상이 성공하지않으면 금년말까지 미국의 퍼싱·크루즈미사일의 영국배치를 허용하고 1백26억달러를 들여 핵잠수함에 적재한 구형폴라리스미사일을 미국의 최신 트라이던트미사일로 대체한다는것이 대처의 일관된 선거 공약이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규제와 공공지출을억제、인플레를 잡기위한 종전의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갈 것으로 보인다。대처행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 의해 3년전 21·9%에 달했던 연간 인플레율이 지금은 4%로 잡혔으나 그것때문에 실업률이 12·5%나 치솟는 역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처의 재등장으로 이같은 실업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기는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선거기간중 노동당에서는『실업자가 되려면 대처의 보수당을 지지하란』고 외쳤지만 대처는『높은 실업률은 정부의 失政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원유값인하등에 힘입어 국제경제가 풀리면 취업의 기회는 차츰 늘어날것』이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대처의 지지자들은 대처가 세계 열강의 대열에서 영국의 지위하락을 막아주었으며 그가 영국의 옛영광을 되찾아 줄수있을것으로도 믿고 있는듯하다。일부에서는『선거의 압승은 좋은 정부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서 보수일색의 새 내각이 균형을 상실할 것을우려도하고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사민 중도연합이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서 빛을 보는듯했으나 참패를 맛보았다。

재집권이 확실해진 순간 대처는『다음 임기를 커다란 책임감과 겸양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쇄배를 맛본쪽에서는『보수당의 재집권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혹평했다。

어쨌거나 다음 4년은 영국 동부 그랜덤의 小邑 린컨셔에서 식료잡화상의 딸로 태어난 57살의 대처의 손에 의해 영국의 역사는 만들어 진다。

【外信部기사】

記者의 눈

파리의「한국」세미나

파리 제11대학(파리·쉬드)의 롤랑·옴므총장 주관으로 「국제법 견지에서 본 한국문제」란주제의 심포지엄이 7일하오3시부터 파리 뤽상부르宮 즉上院의사당의 지하 회의실에서 3시간동안 열렸다。

장소가 근엄한 상원의 메디시스·홀이라는 것도 이색적이었으나 파리대학이 관계전문가를선정、한국문제 한가지에 초점을 맞춰 학술토론을 벌인것이 프랑스에서는 처음이어서 관심을모았다。

주최측은 상원의 韓佛친선협회장 자크·메나르、상원의 북한연구회장 루이·펠랑을 나란히 배석토록 배려했다。

휴전후 30년이 된 오늘의 한국문제를 다룬 제2부 발제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사무국대변인을 지낸 프랑스 외무성 대기대사 앙드레·르웽은『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이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또 한국안보문제를 검토한 파리11대학 법과대학장 샤를·조르비브는『북한의 내 세력은 경제적으로한국이 휠씬 우월한 반면 군사적으로는 집중노력을 기울인 북한이 우위에 서있다』고 비교했다。

사회자인 롤랑·옴므총장이 간간이『시간을 줄여 달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발제자들의 이론전개가 길어 자유토론의 시간이 많지않던 점이 흠이었다。첫질문자로 일어선 한국전 종군기자출신 갈리앙씨는『맥아더와 트루먼의 불화』에 관해 말해질문대신지식을 발표하는기회로 삼았다。

다른 질문자가 중공民航機 납치사건을 예로들며『한국이 중공및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조르비브학장을 향해 질문하자 尹錫憲주佛대사가 발언권을 얻어『그것은 73년 6·23선언이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나라와 관계를 수립하려는 한국정책의 한가지일뿐』이라고 답했다。

약1백명의 참석자가운데는 프랑스외무성 東南亞국장 나르댕、美대사관 政務1등서기관 실글레어、前駐韓대사 프레드릭·마스등이 보였고 르·몽드、헤럴드·트리뷴 워싱턴·포스트기자도 모습을 보였다。

파리가 자기安保와 관련하여 敏感한것은 獨逸문제지만 한반도문제심포지엄이 희귀하게 나마 열린것은 휴전30주년이라는역사성때문이었다。

【파리=安炳燮특파원】

온타리오정부주최 한인사회 문제협의회

초청

온타리오정부는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의 캐나다사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오니 단체대표, 또는 개인자격으로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임에는 Attorney General Roy McMurtry장관을 비롯하여 주정부 각부처 대표와 캐나다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발전해가는 한인사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번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에 교육, 문화, 사업, 노년, 부녀, 인권문제등에 관한 한인의 의견을 정부에 알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 하는 동시에 캐나다 한인사회도 정부와 사회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소수민족 그룹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 : 83년 6월 22일(수) 하오 6시
부페· 스타일 저녁식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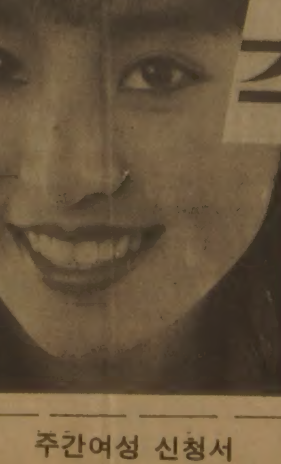
곳 : Downtown Holiday Inn
(토론토시청 뒤)

◆회의준비상 참석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참석하실 분은 아래장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선 533~8344 김창열 536~1166
구상회 598~5991 Khim Tan 965~3423

온타리오정부주최 한인사회 문제협의회
준비위원장 구상회

우송서비스 신설



주간女性

여성독자증가에 따라 가격인하
매주 장보기가 힘드신 분을 위해
집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1권당 $3.00(송료 포함)(종전가격 $3.40)
아래 신청서를 기입, $55.00(최저 20권 요금중에서 $5.00할인)
수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오. (크레딧카드로도 지불가능)

주간여성 신청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수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넘버 ______ 만기일 ______

NAME ______
ADDRESS ______
CITY ______ PROVINCE ______
POSTAL CODE ______ PHONE ( ) ______

改正된 大入 모집요강

前後期 분할모집 實效의문

"名門"내세운 同門압력이 變數로

「大學의 季節」변동…社會영향 줄듯

해설

내년도 대학입시 방법이 약간 달라진다. 선시험 후지원, 전후기 1개대 지원, 복수지망이라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았으나 동일대학및 학과별로 전후기 분할모집을 허용한것은 큰 변화의 하나이다. 이변화의 요체는 지난 4월9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문교부에 건의한 내용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건의 내용을 빼면 내년도 대입시전형방법은 별로 달라진게 없어 문교부가 현 제도를 그대로 정착해 나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가장 문제로 대학,전후기의 심한 불균형 현상이었다. 전국 98개 대학중 모집인원별로 보면 84%가 전기에, 나머지 16%가 후기였다. 그나마 이른바 명문대와 종합대학은 1개대(大邱大)를 제외하고 모두가 전기에 몰려있다.

예전 후기명문대로 남아 학생들에게 다시한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던 대학들은 거의 모두 전기로 전환했다. 학생들은 전기대의 좁은 문을 향해 일제히 피나는 경쟁을해야만 한다.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오늘의 대학입시는 온갖 병폐를 노출하는 빌미가 되어왔다.

문교부가 이번에 施策으로내논 신입생「분할모집」은 하나의 탈출구가 될수도있다. 대학의 대학과 학과에따라 2분의1이나 3분의1등 일정비율을 마음대로 정해 전기와 후기에 나눠 모집한다는발상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것이다. 과거 후기명문대였던 S·Y·H大등이 그런방식으로 학생을뽑고, 다른 명문 종합대학들도 그같은 방법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입시제도는종전과같은 문제없이 잘 치러질것이다.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은 벌써부터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입시절차가 복잡할뿐더러 학생들이 몰릴만한 대학들은 재학생및 동창생의 심한반발로 후기 분할모집을 꺼릴것이며, 실제로 후기로뽑힌 학생도 수학하는데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것이다. 성적이 약간 떨어진다 해도 자기자신이 한번지원한 대학에 입학해야만 학생들은 확실한 소속감 또는 애교심을갖고 대학을다니게된다. 마지못해 명문 또는 일류라는 간판때문에 분할모집하는 후기대학 또는 학과를 선택한다면 먼저 전기로들어온 학생들과 심한 이질감을 느낄것이며 두그룹사이의 성격 격차등 또다른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생겨나게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로는 과거 후기 명문대였던 대학들은 앞서 지적한이유와 벌써부터 재학생들의 은근한 반발로 아예 분할모집을 생각조차 않고있다는것이다. 「전기대」라는 간판을 그대로 둔채 성적좋은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분할모집방법은 실제로 별 실속없이 문제만 일으킬소지가 더 많을수도있다.

이번 대입학력고사에서는 종전보다 한과목이 늘어나 16과목이 됐다. 선택과목으로 인문계는「국어Ⅱ」자연계는「수학Ⅱ」가 첨가됐다. 이바람에「기술가정」「실업」「국사」가 각각5점씩 색점이줄었다. 학력고사에서 인문, 자연계열의 색채가 더욱 현저히 드러나게 됐다. 매년 기술, 가정 또는 농·공·상·가사에서 남녀간 시험의 난이도에따라 得과失을 보아왔는데 이남녀의 득실이 내년도에는 조금줄어들게됐다.

문교부의 학기제개편은 획기적인것이다. 해방이후 거의 30여년간 이어져온 대학의 3월개학 12월초종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2월 개학 12월말 종료로 「大學의 季節」이 바뀌버렸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李鍾九기자】

대학의 新·舊학기 비교표 ('83年度基準 52週)

區分	기간 (1월~12월)			
現行	겨울방학 10주	第1學期 20주	여름방학 6주	第2學期 16주
改善	겨울방학 8주	第1學期 16주	여름방학 12주	第2學期 16주

女記者 칼럼

張明秀 <219>

29살의 自覺·29살의 世界

한국일보는 창간 29주년을 맞아 29살이란 인간의 나이를 생각해보는 특집기사를 싣고있다. 29살이란 나이는 과연 어떤 나이일까.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 27.4살, 여자 23.6살이니 29살의 남녀는 대부분 결혼하여 1명~2명의 子女를 두고 있을것이다. 대학을 나와 군대에 갔다온 남자라면 겨우 직장을 구하여 1년~3년정도 경력을 쌓았을것이며, 「내집」을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것이다. 한집안의 家長이나 주부이고 직업인이긴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직 「의젓한 어른」 대접을 받긴 힘든 나이가 29살이란걸 알수있다.

그러나 29살이란 「어린 나이」이며, 어떤일을 하기에 「부족한 나이」일까. 멀리 살펴볼것도 없이 한국일보 29年史만 돌이켜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않다는걸 깨닫게 된다. 故 張基榮社主가 한국일보를 창업한것은 38살때였고 그에앞서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것은 34살때였으니 그의 29세는 물론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것이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洪承勉씨는 30살에 한국일보편집국장이 되었고 洪惟善·李元洪 국장도30代에벌써부장·국장을 지냈다. 南郁·張廷鎬·李沐雨부장등 이미 세상을 떠난분들의 名部長시절도 모두 30代초반이었다. 오늘의 한국일보를 이룩한 선배들의 그시절 나이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들의 나이를 떠올리는것은 민망한 일이다.

그시절 그분들의 나이를 훨씬 지났으면서 아직도 「미숙한 나이」란 자각에 머물러 있다는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成人대접」을 받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成年의 날」은 말뿐이고 20살이 넘은 젊은이는 여전히 「自他가 공인하는 미성년자」이다.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늦게 立身하여 老年에 이르도록 능력을 발휘할수 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50代에 이르면 벌써 「밀려나는 世代」가되고 55살~60살이면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겨우 한사람의 중견인으로 인정을 받자 곧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니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기간이 너무 짧다.

人生에서 나이처럼 중요한것은 많지 않다는것을 나이들면서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은 점점 더 젊은이를 못미더워 하게 된다. 그러나 20代, 30代가 못할일이란 이세상에 많지가 않다. 「미성년자」란 당치도않은 自他의 인식속에 개발되지도, 꽃피지도, 자각하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의 재능은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가 「成人으로 살수있는날」이 좀더 길어져야 한다는것, 成人이 적은 사회란 무책임하고 미숙한 사회가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한국일보의 29살」을 맞아 생각해보게 된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당신은 禮儀때문에

새人間관계 定立을 위한 「問題의 提起」

敎授밀치며 昇降機타고 男便에 父母이상 敬稱

참석자
▲金貞玉씨 (전梨大교수)
▲趙豐衍씨 (언론인)
▲金仁會씨 (延世大교수 교육학)
▲黃環植씨 (東國大교수 윤리학)

▲黃=인사법도 많이 흐트러지고있는 것 같아요. 중고생은 물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안녕」이라는 한마디로 만나는 인사와 헤어지는 인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趙=어느나라든 만나는 인사와 헤어지는 인사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안녕」으로 혼용하고 있지요. 잘못된 현상입니다. 「안녕」은 한 단어일뿐 한 문장의 인사말이 될수 없읍니다. 반벙어리 말일뿐이지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셨읍니까」「안녕히 계십시오」로 구분해서 썼는데 범벅이 돼버렸어요.

▲金仁=요즘은 「手話」란 말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하지요. 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와 용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수에게 실례가 되는줄도 모르고 「수고하십시오」합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이 말을 들을때마다 몹시 불쾌하다고 글을 써놓은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 기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金貞=이러한 예의 혼란의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생활방식, 사고방식 자체가 그동안 크게 달라진데 있다고 봅니다. 예절은 자기외의 남을 생각하는데서 비롯되는데 오늘날에는 예절이 이기주의에 묻혀 퇴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黃=예절의 변질은 가족구성의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가정교육이 할아버지·아버지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어머니가 이 일을 맡고 있지요. 사실20, 30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예절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잘모르고 있읍니다. 옛날의 예절이 그대로 강요될 수도 없으려니와 강요한다고해서 그대로 행해질 수도 없을것입니다. 현대의 일상생활에 맞는 예절규범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金仁=지난해 문교부에서「기본생활습관지도자료」를 펴낸일이 있읍니다. 거기보면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인사가 돼버린 악수법에 대해 『웃어른과 악수할때라도 허리를 굽히지말라』고 명시한 대목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혹은 직책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악수하는것을 보면 아랫사람은 양손으로 받든가 하면 허리를 꺾어 절을하면서 악수를 하거든요.

▲趙=그것은 인사라기보다는 아부라고 봐야지요. 요즘 보면 여자들도 길거리에서 스스럼없이 악수를하는등 보편화된 인사지만 법도를 따라야지요.

▲黃=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먼저 손을 내밀어서는 안되고, 남자가여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해서도 안된다고 들었읍니다만…

▲金仁=앞에서 「안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악수를 하면서도 「안녕!」하더군요. 악수할 때 상대방 손을 너무 꽉 잡아 아픔을 주는것도 실례가 되고, 시선을 다른데두고 건성으로 손을 흔드는 악수는 더욱 실례가 됩니다.

▲金貞=長幼有序라는 五倫의 하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버스탈 때, 식당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모두가 그래요.

▲金仁=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밀면 교수가 손잡이를잡고있는데 열린 문으로 학생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교수전용 엘리베이터에서만은 학생들이 주춤거리는데, 못됐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金貞=버스를탈때밀치고타던생활습관의 영향이크겠지만 日常의무례가 통용되는 사회구조탓도 있죠.

▲黃=삶의 공간, 文化가 二重性인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몸가짐·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심리때문이지요.

▲金仁=요즘 젊은이들이 술·담배 예의를 잘모르고있는것 같아요. 어른, 특히 아버지앞에서마시고피워도 좋은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趙=담배부터 먼저 풀어나가지요. 흔히 아버지앞에서는 안피우는걸로 알고있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金仁會교수도 부친과 내가 동창이라서 어렵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담배를 안피우는것 같은데… 염려말고 피우세요.

▲金仁=선생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옆에 여자분(金貞玉씨를 지칭)이 계셔서 삼가고 있읍니다.

▲趙=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들어왔을때는 지금처럼 궐련이나 곰방대가 아니고 잘게 썰어서 불을 붙이는데는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불을 붙여달랄수 없는 일이어서 삼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술은 老少가 함께 마시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담배만은 안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만의 기풍속이지요.

▲黃=언젠가독일인父女와함께여행한일이 있는데 딸이 아버지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런데 어른 앞에서 담배를 안피우게 된 우리나라 풍습의 내력은 趙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담배는 朝鮮朝때 들어왔는데 당시는 금은보석에 버금가는 희귀품이었답니다. 그래 집안에서 나이많은 어른께서나 피웠지 젊은이들은 감히 피울 생각을 못했다고해요. 이러한 풍습이 내려오는동안 변질된 것인데 담배가 풍부해진 오늘날에도 그 풍습을 지켜갈 필요가있을까요.

▲金貞=저는 견해가 달라요.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풀리는데 어른들 앞에서 자칫 몸가짐이나 말씨가 흐트러질수도 있어 좋지않다고 봅니다.

▲金仁=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술이나 담배는 같은 음식인데 왜 담배만은 안되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金仁=저는 담배 배우고 20년만에 정식으로 승낙을 받아 아버지 앞에서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 피울때마다 자리를피해 밖으로 나가니 대화가 중단되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드신다며 피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아직도 큰아버지 앞에서는 안피웁니다.

▲黃=제 견해도 어른 앞에서는 삼갔으면 하는 쪽입니다. 사회윤리의 얼개는 가정윤리를 바탕으로하고있는만큼 父子간의 윤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두잔의 술은 괜찮겠지요.

▲趙=최근 여성, 특히 여학생의 흡연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학교에서 교수와 함께 피우는 일은 없읍니까.

▲金仁=외국에 오래 있다온 교수의 경우 세미나시간에 함께 피우긴 합니다만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저는 졸업생과는 함께 담배를 피워도 재학생에게 피우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金貞=술·담배의 문제를 떠나서 요즘 젊은 세대가운데는 부부간의 예의도 모르고, 못지키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黃=요즘 대학에서 남녀선후배간의 호칭에 일관성이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여학생이 선배남학생에게 「형」이라 부르는 것은 예사고 남학생이 선배 여학생에게도 「형」해요. 「선배」 호칭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읍니다.

▲黃=또 일부지방에선 實兄을 「언니」로 부르기도 합니다. 형은 가장 보편화된 존칭인데 「老兄」하면 대등하거나 낮추는 말입니다.

▲金貞=요즘젊은이들은편지쓰는 법도는 고사하고전화도 제대로못걸어요. 제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첫마디에 「여보세요」하면 야단을칩니다. 뻔히 알면서 제자가 스승한테 「여보세요」라니… 그래도 왜 야단을 치는지 상대는 모르고있어요.

▲黃=젊은 세대에게서 도덕언어가 사라져가고 예의가 간소화되거나 잘못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의 책임은 사회구조상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사회에서는 행동을 통한 일상언어에 「익스큐스미」「땡큐」「굿」등 일종의 虛言을 많이 주고받는데 이것이 도덕언어로 승화돼 마찰을 없애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감사」「미안」「고맙다」등 많은 도덕언어가 있는데 이를 언어생활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金仁=朝鮮朝의 교육은 도덕·예의에 바탕을두고 중시했읍니다. 朝鮮이 5백년동안 유지될수 있었던 것도 교육제도의 성공에 힘입은 바가 컸었죠. 그러나 광복후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예의에 맞는 행동과 언어에 대한 공통분모를 잃었어요. 예의는 올바른 언어교육이 기본인데 다른 학과에 치중하다보니 연습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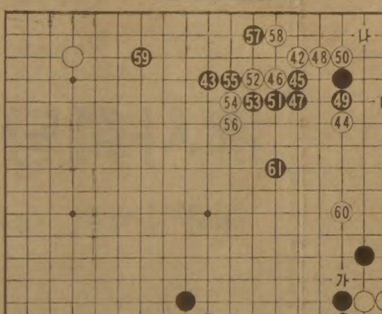
▲趙=특히 방해가 됐던것이 방송언어와 드라마속의 주인공행동입니다.

▲金貞=오늘의 예의가 흐트러지고 범벅이된 현상을 쉽게 사회조류로만 돌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예절이 무너져버려도 좋은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옛것을 그대로 받아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에 맞는 우리공유의 예절이 정립돼야겠읍니다.

▲黃=우리는 예전에 체면 문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흠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도 공정한 사회체제에서 엄격하게 지켜질수 있는 도덕적 유대의 기반이될, 우리시대에 맞는 새 예의를 하루빨리 정립해야겠읍니다.

【기록=李亨基기자】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3譜 33~61 (각5시간·덤5집반)
白(4段)李相激〈1勝4敗〉
黑(7段)徐能旭〈2勝3敗〉

白、때이른 亂調

李4단은 黑33을 보더니 대뜸 白34·66으로 젖혀이었다. 어차피 하변에 「별수」가 없는 이상 일찌감치 선수끝내기를 해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국후검토때도 『白34는 시기상조. 무엇보다 하변黑집을 더욱더 견고하게 확정시켜준 흠이있다. 따라서 이곳은 보류하고 장차 白「가」로 젖혀나가는 수를 보면서 지금은 상변 黑43자리에 시급히벌려놓고 서서히 행군할시기』라는 중론이었다.

그래서 수명이 긴 바둑이란 얘기인데 여하간 초반에 [illegible]이대가를 쉽게 확정시켜 준것은 의문이었다.

李4단도 그즉시 불만을 표시하며 허를 차더니 잽싸기 우상귀를 白42、44.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한다.

한데 다음 黑45이하의 정석과정에서 다시금 보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선 白50이 생각부족. 이수는 흔히두는 식으로「나」자리에 니字로 달려야 편했다.

그리고 白54, 56이 또 조급한 수. 52에서 계속 55로 뻗지않을 바에는 차라리 직접 60에 선착하고 볼일이다.

당장 黑57을 당한것이 불만이고 뒤늦은 白60은 黑61로 되고보니 다음 黑「다」등의 위력적인 선수도 남고해서 우변白을 수습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一凡】

張吉山 <176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4)

『이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의 섬이 미륵님과같이 자씨(慈氏)가 될것이니 누구에게나 태음(太陰)이신 어머니의 마음처럼 너그럽고 인자하고 어여삐 여기는 세상을 이루는 까닭입니다』

여환은 미륵경의 설법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는 도중에 스스로 열기에 차서 더 계속하려는 것을 여환이 은근히 중지했을 정도였다.

『그만하면 이들은 적어도 사흘이 아니라 한달은 버티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회가 말하였고 방귀선이도 그의 소임이 이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는지라 자랑스레 말하였다.

『전에 신서(神書)에 활방(活方)은 궁궁(弓弓)이란 말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동네와 대전리(大田里) 오거리라고들 합니다. 궁궁은 활활한 큰 전야(田野)를 의미한답니다』

여환과 원향은 백성들의 열을 가르며 대전리를떠났다. 그들은 내쳐서 다락원 주막거리까지 나갔고 큰느티나무 아래에는 이원명과 이말립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평에서도 우리 정대덕(鄭元泰) 님이 군민 쪽을 휘동하여 대전리 쪽으로 발정하였읍니다』

이말립이 영평의 동정을 전하였다. 일행은 모두 열두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혜화문으로 입성하였다. 연골(蓮洞)김영선(金永先)네 주막에 여환일행이 당도한 것은 오후가 넘어서였다. 마침 김영선이네 집에는 오랫동안 병을 앓던 그의 아내가 열하룻 날에 죽은지라 삼우제핑계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은신하기에 앞뒤가 맞는 일이었다. 사처를 정하자마자 바빠진것은 역시 검계의 일을 총괄한 김시동과 살주계 일을 맡은 최영길이었다. 정호명 정만일 형제는 해서 강원의 병력이 당도하여 대기한다는전갈만 떨어지면 검계 살주계의 병력과 더불어 사대문을 장악하고 양주 병력의 진입과 더불어 훈련원에 들어갈 참이었다.

김영선은 진작부터 살주계 행수 중길의 당부가 있어서 영길이가 내놓은 무기와 군복을 모두 광 속에 감추어 주었다. 시동은 일단 서강의 모신이네 객점에 나아가 검계의 계원들에게 은밀히알리도록 하였고, 영길이는 혜음령으로 나가서 중길이와 더불어해서의 병력을 인도하도록하였다.

여환은 방안에서 침착하게 염주를 헤아리고 있었으나 황회는 비좁은 주막집 안마당을 오락가락하며 종내 불안한 기색이었다. 초조한 하루가 지나고 김승운은 여환의 지시에 따라 흥인문밖에 나아가 강원승병의 당도를 알리게될 전성달을 기다렸다. 성문이 완전히 닫히는 땅거미가 질 무렵하여 김승운이 돌아왔건만 그는 전성달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해서의 신천 소메(牛山浦)에서 오계손이 양주 소식에 접한 것은 보름날 오후였다. 그는 여환의 새로운 통문을 보자마자 구겨쥐며 부르짖었다.

『이 중놈이 모든 일을 망치는구나. 거병에는 날짜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늘, 멋대로 이렇듯 촉박하게 다시 바꾸었으니 이번 일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뒤늦게 손을 쓰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피해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심의실 창설
기사·광고 불평취급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평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이석현 전 편집장이 담당하는 심의실을 설립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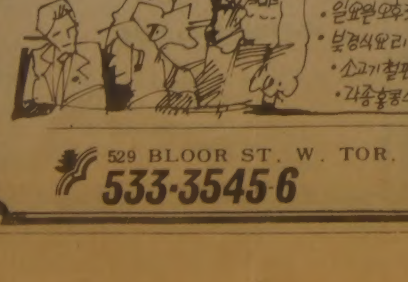
심의실은 기사 뿐 아니라 광고문에 대한 광고자의 불평도 최종적으로 취급합니다.

심의실 전화번호는 회사 전화 번호 533-236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한국일보

O.T.T.A BUTTERFLY
CANADIAN TABLE TENNIS ASSOCIATION
국제탁구대회
MASSEY HALL
*한국, 중국, 미국, 서독, 그리고 캐나다 선수출전.
● 6월15일(수) 오후6시30분 $5.00
● 6월16일(목) 오후6시30분 $5.00
● 6월17일(금) 오후7시 $7.00
판매처 한국일보사(☎533-2361

오리엔탈·파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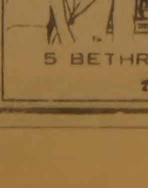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533-3545·6

Grant Brown
GM
■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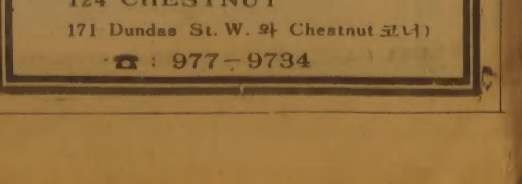
이 한 구
1575 WESTON RD.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김순근과 ADD-K 악단
월~목 :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新禮記

지금은 禮의 混沌時代

傳統·歐美사상등 渦中에

尹絲淳 <高麗大교수>

禮儀, 禮節…。禮라는말은 어쩐지 듣자마자 달갑지않은 느낌이 든다。가벼운 거부감·저항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발동을 용납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뿐 아니라 우리의 예의식은 주로 유교와 직결된 것인데, 유교가 흘러간 낡은 사상이고 보면, 이러한 선입견까지 작용하여, 예에대한 느낌이 나빠졌을 것이다。

사실 과거의 예는 지나치게 번잡하였다。삼강 오륜을 바탕으로한사례(四禮:관례·혼례·상례·제례)、오례(五禮:길례·흉례·빈례·군례·가례)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예가 삼백이니 삼천이니 할 정도였다。

예의 번잡성에 빠져 오히려 질서감각을 잃을 현편이었다。「예가아니면 듣지도 보지도동하지도말라」는 공자의 말씀을 따르려다 도리어 아무 행위도 못할 처지였다。

그 뿐인가? 예의 실천을 기준으로 소인(小人)군자(君子)의 평가가 갈리고, 예의 적용을 둘러싼 이른바 예송(禮訟)에 의하여 당쟁(黨爭)이 일었음도 상기하여야 한다。이 점에 이르면, 과거의 예가 그 지나친 형식주의의 사고로해서, 공적도 있었지만 폐해도 없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다。

시대가 바뀐 지금, 예는 이제 불필요한 것일까?

따지고 보면 방종은 어느 때 어느 시대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전통사상인 유교의 예라하여 폐단만 지닌 것이 아니다。유교의 예에도 이어 받아 살려야 할 장점이 많다。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이제 과거의 예가 다 불필요하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원래 예란 도덕을 근간으로 한것이다。도덕의 덕목들을 종교·사회적 습속가운데서 확충·구체화한 규범·법칙이 예이다。도덕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예는 인격의 교양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격의 타락과 도덕적인 혼란·무질서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이 있는 한, 예는 본질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다。다만 과거의 예 중에서 오늘날에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가릴 줄 아는 슬기가 아쉬울 뿐이다。따라서 우리는오늘의예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것이다。

손위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반드시 자형(姊兄)이라야하고,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매부(妹夫)라야 한다는 구분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다。

더우기 과거에는 아내의 아버지즉(丈人)에 대하여 빙군(聘君)빙부(聘父)라 하는것도 웃음거리로 삼은때가 있었다。오늘날에는장인에게 아예 아버지라하지않는 사람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가?

아호빠의 칭이 아이에 대한 아빠의 뜻인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뜻인지모호해진것도 오늘의현실이다。

그뿐인가?오늘의 제사는 적당히 차려놓고, 적당히 써붙이고, 적당히 절이나 하고나면 그만인 경우가 많은것도 사실이다。제식으로도 기념식(?)으로도 추도식으로도 불린다。

경로층이 멸시와 학대를 받는 것이 예사이며, 노인이 불량청소년에게 행패를 당한는것은 반드시 행락장소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신문의 사회면에는 매일같이 호래아들 몰염치한 무례한(無禮漢)심지어, 살인마(殺人魔)들까지 범람하는것이 오늘날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어느정도는 과거의 예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과거의 예가 오늘에도 약간의 제약으로 영향을 끼치는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그힘은 이제 지나칠만큼 미약하다。예는 시대에따라 변하는 것이고 또 합당하게 변해야 하는것이다。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그변하는 정도가 너무 충격적이 아닌가한다。

우리의 현실은 예의 변모 현상이 아닌 예의 혼란, 혼돈, 심지어 부재의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예의 본질을 깨달아야할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있다。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 × ×

예의 발생은 원래 무속(巫俗)중의 금기에서 비롯되었다고한다。신성과 부정을가려 행위하려는데서 예가 비롯되었다는것이다。

이로미루어 알수있듯이, 예는 일정한 생활태도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산물이다。유교에서 예를 가리켜 천리(天理)의 절목, 또는 인간사의 의칙(儀則)이라 하는것도 이 때문이다。그 가치관이 양심에의거하여 자율적으로 교양의 차원에서 행하여지는데에 예의 특성이있다。즉 이점이 같은 규범법칙인 법과 다른점이다。가치관의소산이 예이므로, 예사이의 충돌·마찰현상여부는곧 가치관의상이여하에달렸다。

종래의 무속과 도교 및 불교의가치관은 유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과거 유교의 예를 굳히는데 이 사상들 간에 특별한 마찰이 일지 않았다。다 아는그대로 우리는 유교에 의하여 이른바「동방예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었다。

그러나 기독교 전래이후부터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그 가치관의 차이가 심하기때문에, 기독교의 전래 직후부터 그예관념과 유교의 예관념은 충돌·마찰을 크게빚었다。과거 윤지충이 유교식 제사의식을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을 기화로 일어난 신해사옥(辛亥邪獄)이 그좋은 사례이다。

이어서 개화(開化)의 물결을타고 밀려든 서구 근대사상이 유교와 매우 다른 것임은 물론이다。자유 평등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근대사상은 근본적으로 수평적사회질서를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것은 삼강 오륜에 의한 가부장적 수직적 사회질서를 그리는 유교의 가치관·예사상을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유교의 봉건사상을 탈각하는 것이 곧 근대사상인 셈이니, 두 사상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8·15 해방과 더불어 소개된 미국의 실용주의는 유교에서 보지 못하던 개인주의의 실속위주의 공리사상을 이땅에 심었다。6·25의 전란은 아예 예에 대한 의식마저 앓게 하였다。

상대방 價値觀 인정하고 조화필요

거기에 60년대 이후의 근대화 운동역시 공복감의 충족운동이었던셈이다。고도성장의 기치는 곧 이기적 물량주의 배금만능사상을 조장하는 폐단을 낳았다。산업화 기계화 현대화의 구호는 날로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제로, 핵가족제에서 단독자의 소외감만을 맛보게 하고있다。

이와같이 살펴면 우리 현실에 나타난 예의 혼란·부재현상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그것은 바로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과 기독교및 근대 현대의 구미사상들이 무비판적으로 혼재하고 있기때문이다。특히 남을 조금도고려에넣지않고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주의의 가치관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혼돈현상을 극복할수 있을까?

세대간에 이교인들간에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해야겠다。그리하여 서로 용납할수 있는 가치관의 조화속에서, 다 같이 절도있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기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치의 눈을 떠야한다。이 사회가 나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남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남과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도 나와같은 욕구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혼란의 극복은 그 남도 나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몸소 염치를 차리는 길 밖에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예를 공경·사양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였고, 공자는 남을 사랑(仁)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예의 절목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이러한예의근본정신이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적용되는것이다。

당황한적이 없읍니까

▲金貞玉=얼마전 한 TV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기 남편을 가리켜『우리 그분이 이러셔서…』、『우리 그 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평소 남편과 단둘이 있을때는『자기』어쩌구 하며 반말을하다가도 남앞에서 남편은 아버지이상으로 떠받든는것을보고 낯이 뜨거워졌어요。웃어른 앞에서 아랫사람 얘기를할때 높임말로 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같아요。

▲趙豐衍=방송작가나 PD가 그런 정도도 모르고 드라마를쓰고 만든다는게 한심합니다。방송은「말의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말투나 행동을 TV를통해 내보내는경우 젊은 세대들에게 나쁜영향을 줄게 틀림없읍니다。

▲金仁會=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친척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말할것도없고 말을 올려야할지、낮추어야 할지를 모르고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문제는 가문과 지역사이에 차이를 보이고있어 더욱 어려운것같아요。한 예로 자기 아내를 남에게 소개할때「부인」「아내」「마누라」「内子」「집사람」「안사람」「안해」「처」「와이프」「밥쟁이」등으로 호칭이 들쭉날쭉인데 어느것이 예의에 어긋나지않은 호칭인지를 저부터도 잘모르겠어요。영어로는「마이 와이프」로 모두 통용이 되는데…。

▲趙=예전사람들은 보통「부인」이라고 불렀읍니다。李忠武公의 亂中日記에도 부인이라고 적혀있더군요。

▲黃璟植=옛어른들이 다른사람에게「부인」이라고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랬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거부반응을 받을것 같아요。자기 아내를 너무 높이는 것같아서 말입니다。

▲金貞=이例만 보더라도 예의범절이나 호칭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고있는것을 알수 있어요。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기준이 너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얘기해야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을지 가늠할수 없어 당황할때가 많읍니다。

▲金仁=요즘에는「아내」도 높임말 같아서 자기부인을「마누라」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실은예전에는 낮춤말이 아니라 대단한경칭이었읍니다。무속에선 신을 일컫는 호칭이었고 朝鮮朝때는「마마」와 같은 뜻으로 통했다고해요。

▲金仁=馬海松씨의 수필을보면「아내」라는 호칭이 좋지만 사실은「안해」라 한는게 정확한 호칭이라는 귀절이 나오지요。

▲趙=「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지요。우리민족은 태양을 숭상해왔거든요。남자가 밖에서 귀가했을때 집안에 주부가 없으면 컴컴해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치지요。李熙昇선생도 한글사전에「아내」「안해」두가지로 적어놓았더군요。

▲金貞=남편에 대한 호칭도 어렵지요。저의 경우 고인이 됐으니 쉽게「영감」이라고 호칭하고 글로 쓸때는「내 남편」이라고 쓰고 있지만…。

▲趙=예전집안에선「舍廊」이란 말도 썼지요。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거의 한결같이 남편을「아빠」라고 부르는것 같아요。「아빠」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때「아버지」란 발음을 소화하지 못해 쓰는 幼兒語이지 남편의 뜻은 아닙니다。

▲金貞=이같은가족구성원간의호칭외에도 거리에 나서면 예의없는 비어가 마구 난무하고 있어 한심스러워요。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는언어가 판을쳐요。한 예로 백화점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한결같이 중년여인은「아줌마」、나이 많은 사람은「할머니」로 호칭하는데 그 억양마저도 악을쓰듯 거칠어서 듣기가 거북해요。일본인들이「옥사마」「옥상」이라고 상냥하게 말하듯「마님」으로 불러 줄수도 있지않을까요。

▲金仁=여대에서 강의를하고 있을때 여학생들로부터「아저씨」라고 많이 불렸읍니다。그럴때는 참 기가 막히더군요。

▲趙=요즘 젊은이들은 말, 특히 인사말을 너무 모르고 있읍니다。얼마전 TV에서 젊은 여성아나운서가 국무총리와 인터뷰중 음식맛과 관련해서『전에 먹으신 경험이 있으시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잡수신·드신」아니면「먹은」이지「먹으신」은 뭡니까。젊은이들에게 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예의가 갈수록 없어져가고있는 것같읍니다。

▲金貞=예부터 우리나라의 예의는 수직관계였고 지나치게 엄격했읍니다。그러던 것이 사회의 급변과 함께 쏟아져 들어온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수직관계의 예의는 많이 파괴됐지요。그러나 평등한수평관계의 예의라도 정립을 해놓았더라면 예의의 범벅현상을 보이지 않았을겁니다。예의규범은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가지 교육을 젊은이들에게 잘 시키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였읍니다。

黃교수께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 진단을 해보시지요。

▲黃=朝鮮朝때선조들은윤리·도덕의문턱이 아주 드높은사회에살았었지요。일거수 일투족에 윤리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도덕규범의 그물망(web of moral code)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규제했었지요。근본정신이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을지 모르나 범부들은 煩禮의 노예가 되게 마련이었읍니다。

이 때문에 인간성은 극도로위축, 억압되기에 이르렀지요。엄격하고 복잡한 유교윤리에 시달리던 반작용 때문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윤리나 도덕이라고하면 으레 무언가 고리타분한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金貞=黃교수의 말씀을 잘알아듣겠읍니다만 나이든 세대의 입장에서볼때 걱정되는 점이 많읍니다。어느사회든 갑작스런 점프·도약은 없다고보는데 젊은이들의 언어나몸가짐을 살펴볼경우 이사회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과거에 범윤리주의가 너무 강요되었다고해서 최소한도의 개인윤리마저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은 문제인것같아요。

▲黃=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윤리보다 사회의 체제나 기본구조의생리및 체질개선을 규정하는 사회윤리에 더 큰 관심을갖고있는 경향입니다。이때문에 웬만한 개인윤리적 非禮를 덮어두는 풍토가 조성되어 기성세대로부터 버릇없다는 소리를 듣고있지요。어정쩡한 예의의 범벅현상을 보이고있는것인데 저도 젊은 탓인지는몰라도 개인윤리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가치관을 포괄하는 사회윤리를 확립시켜 세대와 계층간의 틈을좁히는국민적유대감을 일으켰으면 합니다만…。

▲金仁=黃교수도 지적했듯 개인의 윤리관에 밀관성없는 예의의 혼돈시대에 살고있는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군대에서 자기 부대내의 상하간 예의는 철저하고 깍듯한데 부대밖에서는 달라요。장교가 지나가면 사병이 피해가거나 못본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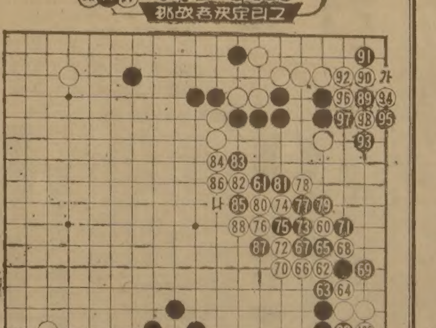
장교 측에서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다。귀찮기 때문이지요。그러나 미군들은 다른것같아요。우리나라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너무나 함부로 예의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많읍니다。

▲趙=이러한 예의의 이중성은요즘 직장에서도 많이 볼수 있읍니다。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잘지키지 않는 예의범절을 직장의 상사앞에서는 사대부집안 자식처럼 지키고 있어요。특히 관청에서 두드러지는데 웃사람을 너무 받들다보니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아첨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광복후 서구문화의 유입과 사회의 급변으로 예의의 혼란을크게 겪고 있다 전통적관념이나 예의에 익숙했던 세대와그렇지못한 세대가 공존하면서 세대간의 예의 단절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예의의 범벅현상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있는 (右로부터) 金仁會·金貞玉·趙豐衍·黃璟植씨。

아빠·老兄·꼬마·먹으신·수고·안녕등 誤用흔해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勝負手가 패착

第18局 第4譜 60~100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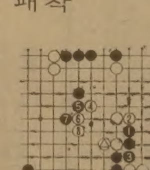
白(4段) 李相澈 (1勝4敗)

黑(7段) 徐能旭 (2勝3敗)

개전벽두부터 보조가 흔들린 李4단은 아직도 냉정을 못찾고 이상한 수를 계속 두고있다。白60에서 62로 뛰어붙인수는 어쩔수없다 치더라도 다음에■白64로 끊은수가 패착이었다。

주위가 온통 黑천지인 곳에서 굳이 싸움을 거는것은『자살행위나 다름바 없는 만용』이라는 혹평도 나올법하다。우선 黑71까지로서 白은 후속수단이 없다。

『白64는 일단 66자리에 뻗어야했다』는 趙南哲 8단의 의견이다。즉 참고도의 △표면 黑1에서 3이 절대이니 그때 白4이하 8로 모양을 갖추어 승부할 밖에 딴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실전은 白72이하 86까지 일단 외곽을 정비했지만 실리를 너무 크게 앗겨 버렸다。

黑도 89에서 91은 93을선수로 이용하자는 공작인데 95가과했다。黑「가」로 패를 이기지 못할 바에는 중앙을 黑「나」로 끊어낼 시기라고 한다。 【一凡】

꽈리

벌써 6月 초순인데도비바람이 어찌 심한지 아직도 코트를 못 벗게하는 시카고의 날씨다。매번 봄이면 손바닥만한 뜰이지만 매토요일마다 삽으로 뒤엎고 비료를 주고 다독거리며 소꿉장난 같이 각종 씨를골고루 뿌린다。상치、들깨、오이、호박、토마토、고추등을심고 그야말로 애기 돌보듯 가꾸다보면 우리 네식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정담게 나누어 먹는 맛과 흐뭇함은 어디에 비할까。

서울 본토박이로、흙과는 거리가 멀게 자란 때문에 흙과 채소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던 내가 뒤늦게 이곳「시카고」에서 농사재미를 보고있다。농사짓는 분의 노고와 그마음을 이젠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꽈리씨를 못구해서 심어보지 못해 안타깝다。우리가 어려서 입술을 뽀족하게 내밀고 즐겨불던 꽈리를 우리애들은전혀 몰라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한다。직접 구해서 길러 봤으면 하지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꽈리는 푸른봄을 매달고 자랄때부터 귀엽고、밝게 물들며 익어가는과정을 바라보다가 엮어매달면 민속적인 정취를풍기는 더없는 애들의 놀리개가 되었다。해마다 씨앗 심는 계절이 오면 우리집 뜰에도 한국적인 꽈리를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곤 한다。

【이규동·3882-N.sayre, Chgo, Ill. 60634 U.S.A】

"人生을걸고 노래하며 내꿈은 무대 海外로…"

趙容弼、日本공연끝내고 歸國

『제 가수생활은 지금부터가 참다운 시작입니다。이번 일본공연은 이러한각오를 새롭게한 무대였읍니다』

지난 5월22·24·26일 東京의 NHK홀및 고오베의 국제회관、후쿠오까의 시민회관에서 열린 5회의 공연에서 1만7천여명의 관객을동원、한국가요의 진수를 보여주고 귀국한 趙容弼은 해외공연의 성공때문인지 다부진 각오를 보인다。

NHK사업단이 초청한 이번 공연은 막상 막이 오르기 전까지는 성공여부가 미지수였다。동양가수로는 NHK홀에서 대형콘서트를 갖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그러나 NHK홀에서 열린 두차례의 공연은 예매가 완전 매진돼8천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고오베、후쿠오까의 공연도 대성황을 이루어 요미우리、산께이、아사히등 일본신문들로부터 좋은평을 받았다。

특히 그가「한 오백년」을 부를 때는 관객들이 열띤 박수를 보내 주었고 막이 내려도 자리에 그대로앉아『앙코르!』를 연발했다고 한다。뿐만아니라 그의 디스크가 일본전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

『제 꿈은 국내활동에 그치지않고 무대를 해외로넓혀보자는 것입니다。시험무대였던 이번 공연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냈읍니다』

오는 10월께 이번 공연보다 더 큰 무대가 일본에 마련될 것 같다고 밝힌 그는 성공적일 경우 1년중 6개월정도는 일본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자신의 인기유지 비결을『인생을 걸고 노래하기때문』이라고 밝힌 그는『가수가 오래 무대에 설수있는 길은 하드·트레이닝밖에없다』고 말한다。 【李】

◇일본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한 趙容弼은 현재의 인기에 만족하지않고 해외무대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펴보인다。

▣ 대부흥성회 ▣

조용기목사와 함께 세계최대의 교회인 순복음중앙교회(현재 성도 27만)와 순복음금식기도원(2만명수용)을 이룩한 기도와 권능의 종이신 최자실목사「할렐루야 아줌마」가 토론토에 오시어 귀중한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모두들 오시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3년7월8일(금)~10일(주일) 오후7시30분

장소 : 순복음카나다교회 (이스링턴과 알비온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

주최 · 순복음카나다교회 ©743-4813, 745-3884 담임목사 조이식

순복음토론토교회 ©881-7162, 247-9577 담임목사 이필주

강사 최자실 목사

■ 순복음중앙교회 목사

■ 순복음금식기도원 원장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먹어버린 山蔘, 가짜是非

「寒溪嶺서 3월에캔 12뿌리」놓고 전문가 맞붙어

雪嶽山 반달곰의 웅개(웅담)가 4천6백만원에 팔리는「보약만능」세태속에서 이번에는 보약의王인 신비의영약 산삼(山蔘)12뿌리를놓고 그방면에서는 내노라하는 라이벌 두사람사이에「가짜시비」가붙었다.

그러나 문제를일으킨「산삼」은 이미 누군가 먹어버려 법정에 사건으로만 등장한 산삼12뿌리가 과연 진짜였나,가짜였나를 가리기위해 경찰은한달보름째 진상조사를 계속하고있다.

화제의 산삼은 지난 3월12일 심메마니 鄭모씨(62)가 강원도 한계령 중턱에서 캔것으로 뿌리하나가어른엄지손가락굵기에 길이가25cm나됐다.

심메마니의우두머리인 심메마니라해도 일생에 1~2뿌리 이상 캐기가 어렵다는 산삼을 한꺼번에 12뿌리씩이나 캤다니 그소식은 곧 각일간지와 TV에 보도될정도로 보약가에 톱뉴스가 됐다.

鄭씨는 이산삼을 단골 거래처인 서울 鍾路區貫鐵洞 고려인삼공사주인 李俊成씨(70)에게「아무도 알수없는 액수」에 넘겼다.

李씨는 다시 이산삼을 이번 싸움의 한쪽당사자가된 서울江南區新沙洞「깊은산속 만물삼」주인 李□權씨(32)에게 팔아달라며 맡겼다.

李씨는 산삼을 포함한 자연식품판매를 3대째 계속해오는 사람으로 젊기는하나 그자신 13년째 산삼을 취급해온 그방면의 권위자로 알려져왔다.

고려山蔘회장 任씨 "캤다는날 大雪·산에 씨앗뿌린것"

3代산삼취급 李씨 "보지도않고 어떻게 아나" 告訴

李씨는 보도기관에 자신의 감정결과는물론 K대화학과 K박사, 전매청에서 28년이나 근무했다는 고려산삼연구소 H소장의 감정을 토대로 문제의 산삼이 80~1백년이상된「진짜산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산삼취급업계에서 역시 권위자의 한사람인 서울江東區千戶洞 任德盛한의원원장이자 고려산삼연구회회장인 任씨가「월간골프」지 4월호에 기고한「곳雪속의 山蔘」이라는 글을 통해 문제의 산삼이「가짜」라고 주장, 시비가 생겼다.

任씨는 그 산삼12뿌리가 지난해10월부터 심메마니들이 서울시내에서 팔러다닌것으로 인삼씨앗을 산에뿌려 거둔장뇌인삼이라고주장했던것. 任씨는 또 심메마니鄭씨가 산삼을캤다는 3월12일을전후해서는한계령일대에 폭설이 내리겠다는 기상대예보가 있었고 실제로 TV가 눈이내리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줬으니 심캐기가 불가능했으리라고 근거까지 댔다.

그러자 李씨가 즉각반격에 나섰다. 李씨는 ▲3월12일을 전후해 한계령일대에 눈이내리지 않았다는 중앙기상대의 기상증명서와 ▲전에 산삼을 감정했던 두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任씨의 주장은 라이벌의식에서 나온 모함에 불과하다』며 任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및 업무방해혐의로 서울 江東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진짜」일경우 수천만원을 호가하리라는 이 산삼12뿌리는 싸움이 벌어지기전에 자취를 감춰버린뒤였다.

처음 산삼을 사들인 李俊成씨는「깊은 산속 만물삼」주인 李씨가 팔지 못하고 도로넘겨주자 자신이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것이다.

고소를당한 任씨는 문제의 산삼이 지난해가을 차모씨(52)와 金모씨(52)가 강원三陟郡蘆谷面 鄭모씨소유의 장뇌인삼밭에서 사 여러중간상을 거쳐 李俊成씨에게 넘어간것이라고 재공격.

任씨는 5월1일자「한의학정보」지에『12뿌리중 2뿌리는 자신이 팔러다니던 장뇌인삼이 틀림없다』는 許모씨의 자필확인서가 있다고 기고까지했다.

"補藥만능 세태"… 경찰 진땀

그러자 李씨는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로「가짜설」을「가짜」로 몰고있다.

우선 산삼을 직접 보지도못한 任씨가 TV나 신문사진만을 보고서 대뜸「가짜」라고 할수있느냐고 말한다. 산삼인지 장뇌인삼인지는 실물을 본 전문가라도 쉽게 구별할수없다는것이다.

눈이 오지않았는데도 任씨가 눈내리는 장면을 TV에서 봤다고 주장한것도 저의가 있다는게 역시 李씨의 주장이다.

경찰이 시원스런 결론을 내리게 될지 두고볼일이지만 지금으로서 분명한것은 우리사회가 보약을 너무 따진다는 사실이다.【鄭基奉기자】

雪嶽山 반달곰웅담 4천6백만원 落札

雪嶽山 반달곰의 웅담이 10일 상오 11시 창경원에서 2차 공개 경쟁입찰에 붙여져 4천6백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모두 22명이 응찰, 이들중 趙洪健씨(27·한의원·서울東大門區 上峰2洞 111의15)가 최고가인 4천6백만원을 써내 낙찰됐다.

고기 百53만원

【束草】지난달 22일 雪嶽山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반달곰 고기51kg이 10일 공매입찰에서 이성관씨(49·서울江東區明逸洞337의9)에게 1백53만원에 낙찰됐다.

東草市가 이날 하오2시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곰고기 입찰엔 5명의 신청자중 4명이 입찰, 이중 1kg에 3만원씩 응찰한 이씨에게 돌아갔다. 東草市의 내정가는 쇠고기 정육의 3배가격인 1백25만원.【鉉】

초여름 가뭄

食水難… 밭농사가 타고있다

비 例年보다 40~50mm 적게와 중순께나 갈증나는 소나기

◇보리는 大豊이지만… 초여름 가뭄으로 목이탄다。보리농사는 풍년이 들었으나 비가 빠른시일내에 내리지않으면 논·밭농사는 타격이 예상된다.【전남羅州郡多侍面서 權周動기자찍음】

초여름 가뭄이 닥쳤다. 지난5월 한달동안의 강우량이 예년에비해 적은데다 6월들어서도 우리나라 어느지역에도 비가 충분히내린곳이없어 가뭄현상이 깊어져가고있는것.

이때문에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부터 격일제급수를 실시하는등 식수난을겪고있으며 농업용수도 부족해 밭농사등에 타격이있을듯하다.

그러나 모내기에 사용될 물은 전년저수량이 아직남아있어 큰걱정은 없는형편이다.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지난5월한달동안 전국각지방의 강수량은 예년에비해 40~50mm가 부족한편. 또 6월들어서 10일 현재까지의 강수량은 西歸浦의 12.1mm, 濟州 7.2mm, 束草 2.2mm가 고작으로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전혀없었다.

이는 예년같은기간의 평균30~60mm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양으로 가뭄이심했던 82년에도 浦項 40.9mm, 全州 26.6mm, 이밖에 다른지역에도 다소 빗방울이 비쳤던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모자라는셈이다.

이에따라 光州·木浦등 도시지역에서는 10일부터 격일제급수를 시작했고 南江댐은 앞으로 계속될 가뭄에 대비, 이날부터 발전을 중단했다. 또한 강원太白지구 광산촌에는 식수난은 물론 비가오지않아 고냉지채소 재배에 큰타격을 받고있다.

기상대에 의하면 해마다 6월이면 가뭄이 있었다. 장마를 이끌고오는 저기압대가 남쪽에형성되면 북쪽엔 상대적으로 고기압대가 형성돼 날이가물게 마련이나 5월의강수량으로 커버가 돼왔다는것.

그러나 이번에는 5월에도 비가부족했고 이번가뭄의 패턴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부근에서 동서기류의 속도가 빨라져서 고기압이 빨리통과하는 바람에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피해가고있어 생겨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기상대는오는 15·16·19일께에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되나 흡족한양은아니라고 밝히고 이달말 남부지방부터 시작되는 장마때까지 가뭄이계속되겠다고 내다봤다.

지난5월28일이래 전국적으로 비가 거의내리지않았지만 이가운데서도大邱·木浦·浦項지역이 제일적었다.

한편 전국각지방의 모내기사정은 湖南지방은 충분한 농업용수가 확보돼 이달안으로 2모작과 천수답까지 모두 끝낼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날현재 전북의경우 모내기계획면적 16만6천6백ha 가운데 82%를 마쳤다.

또 전남은 20일경까지 모두 모내기를 끝낼수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모내기시기가 빠른 강원·충청지방은 이미 95%이상 모내기를 마친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북지방은 현재 70%의 모내기를 끝냈으나 오는20일까지 비가 오지않을경우 한해대책을 펴야할것으로 보고 도당국은각시군에 한해대책본부의설치를 지시했다.【徐華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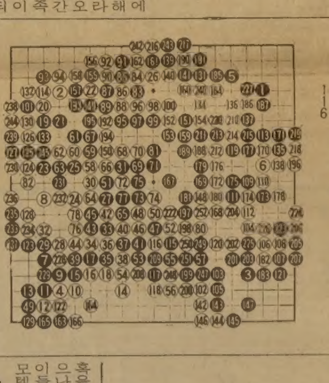
◇제38기 本因坊7번승부3국총보(1~252)

白 本因坊 趙治勳(3승)

黑 도전자 林海峰(3패)

〈黑 5집반공제, 제한시간 각9시간〉

※ 72~42、221~47、241~22、246~116



한국 처녀拉致 난행 안마 시술소 일시켜

美警察, 차이나타운暴力輩 14명체포

【뉴욕AP=聯】3명의 한국처녀들을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납치하여 욕보인후 협박하여 안마시술소에서 강제로 일을시킨 혐의로 14명의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뉴욕경찰이 9일 발표했다.

경찰은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 백호파의 일당 깡패를 비롯, 14명의 깡패들을 10대 한국인 소녀들이 억류돼 있던 퀸즈의 한아파트와 맨해턴거리에서 각각 붙잡았다고 말했다.

한경찰수사관에 따르면 지난8일 맨해턴의한 식당에서 저녁을먹던 한시민이 한국인소녀로부터 자기가 맨해턴의 한헬드클럽에서 강제로 일하고있다는 말을듣고 이를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이제보에따라 그리니치지역에 위치한 문제의 헬드클럽을감시, 2명의 남자가 한한국인소녀를 퀸즈에있는 한아파트로 데려가는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급습하여 3명의 한국인여자들과 9명의 남자를 체포했으며 나머지 5명은 맨해턴거리에서 붙잡았다는 것이다.

17~19세의 이들10대처녀들은 경찰진술에서 자신들이 지난5월25일 캘리포니아州에서 4~5명의 남자들과 우연히 만나 함께 동북쪽으로 여행가자는 유혹을받고 이들을 따라나섰으나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이들 남자들이 퀸즈의 한모텔에서 총과칼로 위협하며 자신들을 강제로 욕보인뒤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걸로 일을시키고 수입을 가로채왔다고 말했다.

油槽船침몰… 8명失踪

해체위해 예인하다

【釜山】해체작업을 위해 부두로 예인돼 오던 3만7천9백톤급 유조선 유제니호가침몰, 이배에타고있던 절단공 26명 가운데 8명이 실종되고 18명은 구조되었으나 이가운데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하오 6시께 경남 蔚山市 鹽浦洞 인천제철 안벽에서 해체작업을 위해 대형 크레인으로 부두쪽으로 예인돼 오던 유제니호(3만7천톤)가균형을 잃으면서 수심 15m 되는 물속으로 침몰됐다.

이사고로 배위에서 작업중이던 전대위씨(22·蔚山市반구동201)와 원중희씨(20)등 8명이 침몰된 선체와함께 실종되고 18명은 구조됐는데 이중 김태용씨(24·蔚山市方魚洞160)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대그룹 부속 해성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인천제철측은 사고가 난후 실종된 8명이 익사한것으로 보고 20명의잠수부를동원시체인양작업을펴고있다.【鉉】

電話70건압류 통보

木浦전화국, 醫保조합 신청받고

【木浦】속보=지난8일木浦市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제2종 의료보험료 체납자들의 전화 가압류신청을 받은 한국전기 통신공사 木浦전화국은 10일 그중 70건을압류조치하고 이를의료보험조합측과전화가입자들에게 각각통보했다.

동 전화국은 당초 1백16건의 전화압류신청을 받았으나 그사이 7건은 보험료를 자진납부했고 37건은 압류대상이아니어서 70건만을 이날짜로 압류한 것이다.【聯】

"醫保 시범사업 擴大안해"

金保社, 보완대책 곧마련

【大邱】金正禮보사부장관은 9일 木浦市등 전국6개지역에서 실시중인 제2종(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빠른시일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하오 대구시池山洞제2 미망인 모자복지회관준공식에 참석한 金장관은 82년7월부터 6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종의료보험시범사업은 갖가지 어려움이뒤따라 앞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金장관은 보완대책이 연구 검토되고있으며 7월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聯】

全南昇州 성내마을 民俗마을로 보존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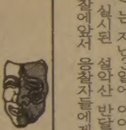
문공부는 10일 전남昇州郡樂安面에 있는樂安邑城을 포함한 성내마을을 우리나라 전래의 대표적 민속마을로 정비하기위해 사적302호로 지정했다.

樂安 마을은 조선조의민가와 관아건물이 남아있을뿐 아니라 성곽 城門址 林慶業장군 비각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반달곰 競賣까지 돌봐야하나

「웅담 아이러니」

창경원 사육과장 金正萬씨



『이 웅담으로 말할것 같으면, 틀림없는 자연산입니다. 81년 경기도 廣州에서 사살된 곰과는 다릅니다. 도토리·칡등 위의 내용물과 곰발바닥의 균열및 털갈이 상태를 보아도 자연산 반달곰임을 알수있읍니다. 원하신다면 사진자료로 보여드리겠읍니다. 특히 독살을 하지않아 웅담에 독이 없음을 내 이름을 걸고 알려드립니다』

창경원 사육과장 金正萬씨(49·사진)는 지난3일에 이어 10일 실시된 설악산 반달곰의 웅담입찰에 앞서 응찰자들에게 웅담소개를 한바탕 늘어놓았다. 약 5분간 손짓까지 해가면서 TV와 라디오 대담에서 닳은 달변으로「자연산」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동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보살펴야할 사육과장이 그것도 밀렵된 곰의 쓸개를 한푼이라도 더 받고 팔겠다고 나선것은 분명 하나의 아이러니다. 이날부터 박제로 되살아난 반달곰이 인간의 한없는 탐욕을 나무라듯 포효하는 모습으로 바로옆 수정궁에서 전시되고 있어 더욱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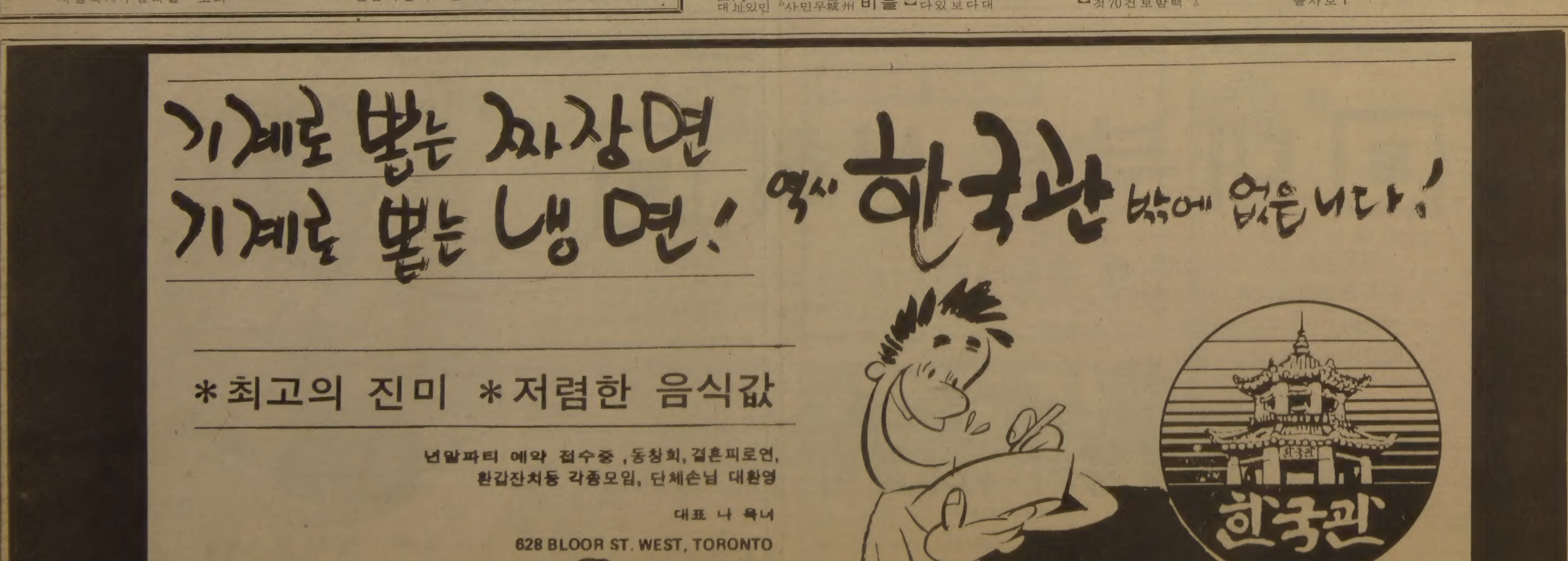
공무원으로서「국고수입증대」란 커다란 사명앞에선 어쩔수 없었고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金씨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동물박사다. 올해로 창경원생활 26년째를 자랑하니 그럴만도 하다. 大邱·光州·순천등 지방동물원에 동물을 분양하거나 외국에서 동물을 사들이는 일에 있어 그는 한약방에 감초같은 존재다.

지난81년 9월 인도 코끼리가 비행기의 소음에 놀라 쓰러진 일이 있다. 6·5톤의 거구가 허위적거리며 광분할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코끼리를 치료, 살려놓았다. 그만큼 그의 동물에 대한 지식과 사랑은 깊고 널리 알려져있다.

이러한 남이 따를수 없는 동물에 대한 지식과 사랑은「쓸개빠진」한 인간이 쏘아죽인 곰쓸개를 팔아야하는 직무까지 마다할 수가 없었다. 그는「동물박사」답게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 4천6백만원이란 거금을 받아냈다. 동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死後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일까.【朴榮蕃기자】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美프로야구 投手의 代名詞

사이·영

7백51게임 完投…5백11勝거둔 鐵腕

퍼펙트게임도 첫기록

歡呼뒤로 사라진 스포츠스타들 <18>

◇강속구와 커브로 투수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이·영。

매년 10월 프로야구 월드시리즈가 시작되면 美國 야구팬들은 사이·영 (Cy-Young) 賞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관심을 쏟는다. 美國프로야구 26개 구단의 내노라하는 투수들도 사이·영상 수상자가 되는것을 최대영광으로 생각한다.

덴톤·트루·영이란 본명보다 사이·영이란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23세때인 1890년 클리블랜드 마운드에 올랐다. 클리블랜드를 출발로 세인트루이스, 보스턴을 거쳐 다시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으로 옮겨가면서 투수로 활약한 기간은 21년. 44세까지 현역선수로 뛰었다. 요즘들어 40세가 넘는 고령선수가 종종 등장하지만 당시만해도 매우 드물었다.

생애통산 5백11승 3백15패. 8백18번이나 선발투수로 기용돼 7백51게임에 완투, 철완을과시했다. 7천3백77이닝에 등판, 허용한 안타수는 7천78개.

클리블랜드에 입단한 첫 6년간 4백이닝을 던졌으며 입단2년뒤인 92년부터 36승·34승·25승·35승이라는경이적인기록을세웠다. 또한 16시즌동안 20승이상을기록, 상대타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38세때인 1905년 7월4일에는 20이닝동안 한개의 포볼도 허용하지 않았다. 187cm·95kg의듬직한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강속구와 낙차큰 커브가주무기였다. 노히트게임을3번씩이나 기록했으며 근대야구사상 처음으로 퍼펙트게임을 기록했다.

어깨부상이나 몸이 아파 게임을 거른적도 없었다. 팀소속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일도 없었다. 철저한 체력관리로 후배와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단한차례 79세때 은퇴후 독감에 걸린적이 있었을뿐이다. 동시대에 대타자로 이름을날렸던 타이콥은『그가 마음먹기만한다면 작은 컵속으로도 공을 던져 넣을수 있다』고 평했다.

영과 배터리를 이루었던 포수 루·크리거는『우리는 피칭사인도 필요하지않았다. 그는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졌고 나는 받기만했다』고 회상했다.

야구평론가들은 그를 야구계에 우뚝선 참나무라고비교했다. 『야구가 계속존재하는한 그같은 투수는결코 다시 등장하지않을것이다. 당시에는 그와 감히견줄만한 선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위대한 투수로평가받았지만 영은 큰돈을벌지못했다. 당시만해도 프로스포츠가 황금으로 연결되지않아 5천달러가 영이 받은 최고연봉이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26년뒤인 37년에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55년, 88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지만 그는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아있다. 숨진 다음해부터 美國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그해 최우수 투수에게 사이·영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는 말을 실증한 셈이다.

【金仁奎기자】

테니스皇帝 보리 TV해설자로 변신

프랑스 오픈大會 준결승戰 첫 등장

한국서 시범경기를 벌였던 테니스스타비외른·보리(27·사진)가 프랑스오픈대회에 TV해설자로 등장했다. 지난달 보리는 프랑스오픈에서 6차례나우승한바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아직도 테니스를 보는게 즐겁다. 새로운 직업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그는 다시 테니스선수생활을 하고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을 확고히했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생각이 달라져 다시 테니스를 하고 싶어 근질거릴지 모르지만 절대컴백은 안할 것이다. 고된 훈련에 싫증을 느꼈다』

지난3일 같은 스웨덴 출신 후배 마츠·빌란데르(18)의 준결승전서 첫 해설을 맡은 보리는 마냥 흐뭇한 표정.

『스웨덴에는 훌륭한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들의 승리를볼때마다 뿌듯한 긍지를 느끼게 된다』

보리가 처음 프랑스오픈 준결승에오른것은 16세때. 그 다음해부터 롤랑·가로 스타디움에서의 연전연승이 시작돼 74, 75, 78~81년, 6차례우승을 안았다.

롤랑·가로스타디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는물음에 잠시 생각한후 『76년 이곳서 마리아나를 만났다』고 대답했다.

보리는 몽테카를로에서 2주간머문후 다시윔블돈대회에서 해설을 맡는다. 【파리AP聯合=特約】

海外스포츠

사이클 마라톤서 존·하워드 世界新記錄

24시간 동안 822km 달렸다

폭우·진흙탕속 驚異的 레이스

81년 하와이「鐵人대회」優勝도

장대같은 소나기와 진흙탕길,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존·하워드(35)가 사이클마라톤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펩시·챌린저·사이클·마라톤서 하워드는 24시간동안 5백14마일(약 8백22㎞)을 달려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대회는 24시간동안 한숨도 자지않고 사이클을타 최장거리에 도전하는 대회다. 레이스가 펼쳐진 이날따라 억수같은 비가 퍼부어 세계신기록수립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러나 하워드는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끼우고 젖은셔츠를 갈아입기위해 내린것을 제외하고 줄곧 사이클과 씨름, 예상을깨고 신기록을 수립했다.

◇24시간 사이클·마라톤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존·하워드。

종전 최고기록은 69년英國 요크셔에서 로이·크로마크(영국)가 세운 5백10마일.

하워드는 센트럴·파크의 5·1마일 환상코스에서 23시간 37초만에 크로마크의 기록을 돌파했다. 美國사이클 대표선수로 올림픽에 3번이나 출전했던 하워드가 펩시·챌린저대회에 도전한것은 이번으로 두번째. 지난해 같은코스에 도전했으나 4백75마일밖에 달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어려웠던때는 첫날하오 3시께. 비가 너무 세차게내려 거의 눈을 뜰수없었고 진흙이 눈과 코구멍으로 튀어들었으며 입언저리도 진흙으로 덮였다. 레이스를 포기할까하는 생각도들었으나 함께출전한 7명의동료들이 힘을 북돋워주어 끝까지 달릴수 있었다.

동료들은 한명씩 선두에서서 페이스를 조절해주었고 나머지선수들은 하워드를 복판에두채 쐐기형태를 이루며 바람의저항과 비를 막아 주었다. 이같은 성원에 힘입어 하워드는 막판에 피치를 올릴수있었다.

팀웍과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 하워드가 세운 작전은 3가지. 오르막길과는 싸우지 않는다. 특히 72번가의 캐츠·포언덕앞에서는 최대한 힘을 절약했고 내리막길에서 전력질주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한 자전거에서 내리지않기로 결심하고 소변도 달리면서 처리했다.

그의 동료들은 초컬릿·바나나빵·샌드위치·오트밀등 손쉽게 먹을수 있는 음식물을 그에게 제공했으며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짭짤한 감자튀김도 수시로 주었다.

하워드는 인간한계를 시험하는 다른대회에도 출전한 적이 있다. 81년 하와이서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2.4마일이나 헤엄쳤고 이어 1백12마일을 사이클을 타고, 26.2마일을 뛰는「철인대회」에도 출전,우승한 바 있다. 82년8월에는 LA에서 뉴욕까지 10일간 사이클을 타고 순위를 가리는 그레이트·아메리칸·바이크·레이스에도 출전했다.

당시 하워드는 하루 한시간씩만 자면서 완주했다.

하워드는『이번 대회처럼 어렵고 보람찬 순간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24시간이 2년같았다』며 이번 레이스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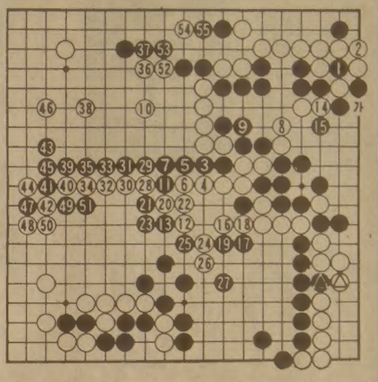
펩시·챌린저대회에는 모두 5천명이 참가, 칼·잘렌코(23)가 4백1마일로 2위, 로버트·바에트(20)가 3백86마일로 3위를 차지했다. 베스티·테너(26)는 3백29마일을 기록, 여자부 1위를 마크했다. 【外紙】

名人战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18局第5譜 101~155 (각5시간·덤5집반)

白 (4段) 李相澈 〈1勝4敗〉
黑 (7段) 徐能旭 〈2勝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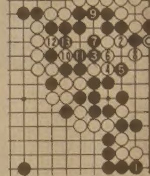
우상귀쪽의 패싸움은 黑이 공연히 일을 복잡하게 꾸민것인데 그러나 이제와서는 白도 黑에게 2자리를 당할순 없다.

그래서 전보黑99, 본보▲표의 패씀을 일단 △표로 응수하고 黑1때 白2로 후퇴한 것이다.

하기야 白은 이판사판식으로 우하의 패씀을 받지않고 白「가」로 따낼마음이 간절했는지, 李4단은 여기서 5분가량 망설이고 있었다.

△표로 받지않고 白「가」에따내어 우상의 黑을 몽땅 잡는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안된다. 참고

白大軍 전멸



도의 ◎표로 따내면 黑은 1로째어 우선 우하귀를 잡고 白2이하의 공격에는 黑13까지로 깨끗이 완생한다. 白10은 12에두어도 마찬가지.

비록 그러나 실전처럼 白2로 무조건굴복해서는 승부를 포기한 느낌이다. 이윽고 黑3이 결정타가 되어 27까지 중앙白이 왕창무너졌다. 白28이하는 그저 두어보았을뿐이지만 참담한패배였다. 【一凡】

성경, 찬송가, 각종 서적 714 Bloor St. W. 종교서관 성화, 성가테입 각종 설교테입 Tel.: 535-1920

교회 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준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H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얼)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박하규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6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illegible]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성경공부 오후1시 대예배 오후1시30분 수요성서공부 오후8시 토요성서공부 오후8시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 1부 오후1:30 주일 2부 오후2:30 금요기도 저녁 9: 새벽기도 토요6:0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알	423-9880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3:30 새벽기도 토요일 아침6시 구역예배 금요일 오후7시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생명의 전화) Downsview, M3H 3C3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783-5881 (204)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illegible]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런던한인천주	김병운		196 Dufferin Ave. London	1-519-673-0037
에드몬톤천주	이요한		9809-76 Ave. Edmonton	1-403-488-6505
몬트리얼천주	김용효(요셉)	오전10시30분	St.Gabriel Church 2157 Centre St. Montreal	1-514-932-2667
뱅쿠버천주				1-604-435-3069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仁川 壽鳳공원·春川공설運주변에 설치人氣
톱밥길 조깅
選手·주민들 마음껏뛰고 달리며 체력단련
費用적고 관리쉬워 전국 50여곳 설치준비

톱밥길로 88년을 뛴다。숲속 오솔길에 톱밥등을 펴 맡은 조깅코스가 인기를 끌고있다。인천 壽鳳공원 오솔길에설치된 폭3m、길이1·2km、높이10cm의 톱밥길은 아침、저녁이면 1천여 인천시민들이 달리고 걷는다。

壽鳳공원 야산중턱에 있는 톱밥길에는 배드민턴·철봉·평행봉·매달려 손으로걷기를 할수있는 운동시설이 고루 갖추어져있으며 소나무、오리나무등이 꽉 찬 숲속 오솔길 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할수있다。톱밥길은 조깅코스로만 이용되는것이 아니라 하오에는각학교육상、축구、유도 선수들이 훈련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壽鳳공원 톱밥길은 82년 내무부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시민체력향상을 위해 조성한 체육공원 조깅코스에 仁川大스포츠과학 연구소장 孔應大박사(48)가 숲속오솔길순환로를 폭3m로 넓혀 길옆에 시멘트로 턱을만들고 땅을 10cm가량판후 톱밥、대패밥、나무껍질、생솔잎、볏짚등을 잘게썰어넣어 다진길。맨땅이나 아스팔트길보다 충격이덜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톱밥길은 春川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폭2m에 길이1km정도가 조성돼있고 全州 덕진공원 동물원 주변、부산어린이공원、大邱 앞산공원、大田 보문산공원、忠州의암호주변등전국 50여개소도 조성준비를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톱밥길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를 달리는것과는 달리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없어 하퇴부(무릎과 발목사이)가 아프지않고 운동을하다 넘어져도 찰과상등을입는일도 거의없다는것。

82년 仁川大 체육학과 학생들이 톱밥길위에서 연습을한결과 발목과 무릎부상환자가 예년에비해 20%정도 줄었다는것。

全南의대 盧成萬교수(정형외과)에 의하면 인체는 달리는 순간마다 하체에충격을 주게되며 이런반복충격이 축적될경우 조직손상을 일으키는데 딱딱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위를 달릴때 곧바로 무릎등을 다칠 위험이 크다。

톱밥길 조성비용은 잔디길보다 훨씬적게들며 壽鳳공원 톱밥길의경우 5백여만원이 들었다는것。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으며 몇년에 한번씩 톱밥만 더 넣어주면된다。

仁川시는 육상시범학교인 濟物浦高운동장과 무학국민학교 뒷산에도 전문육상인을 위한 톱밥길트랙을 조성할 계획이다。

孔박사는 등산할때 깊은산 낙엽이쌓인 산길을걸을때와 맨땅을 걸을때 차이가있다는 점에 착안、81년 체육부와 내무부의협조를얻어 톱밥길을 인천壽鳳공원에 조성한것。

경사5~10도쯤 되는 구릉이 2백여m씩 이어지는 곳이면 톱밥길을 만들수있고 숲속이나 호수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어 심장·순환기계통을 튼튼히 해주고 근력、힘을함께 키울수있는 옥외체력 장소로 권장되고있다。

孔박사는 톱밥길은 도시 시민들의 신체적 활동기회를 주는데 큰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洪元杓씨(56·상업·인천시南區崇義3洞67)는『숲속이라 공기도맑고 밟는땅이 딱딱한 맛이없어 기분이 무척좋고가파르지도않아 큰부담이없다』고밝혔다。

톱밥길은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볏짚·솔잎등 재료가농촌에 산재해있어어느곳이나설치할수있다。【宋大洙기자】

충격없이 사뿐사뿐… 넘어져도 그만

◇신선한공기도 마시며 인천壽鳳공원톱밥길 조깅코스가 인기를 끌고있다。숲속에 마련된 길이어서 운동부족과 각종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있다。

세계청소년축구 한국、우루과이와 내일 4强다툼
오른쪽날개 미란다를 꽁꽁 묶어라
터치라인이용 허술한 풀백 뚫기작전

【멕시코시티=安春燦특파원】제4회세계청소년축구대회를 취재하고있는 각국기자들과 축구전문가들은 한국과 우루과이가 모두 정상급의 팀들로 막상막하의 열전을 벌일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편 B조에선 마지막경기서 우루과이와 싸워 0-0으로 비겼던 아이보리코스트의 벤자민감독은『우루과이는 훌륭한 팀이다。플레이가 다채롭고 팀웍이 잘 짜여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의 포메이션은 4·3·3전법。

선수중에는 동작이 빠른 오른쪽날개 미란다가 돋보이고 한국이 경계해야할 선수로 지목되고 있다。그는 순간적인 트릭을 잘 구사한다。미란다와 함께 LW올리베이라도뛰어난스트라이커。

이밖에 HB 살라자르가 미드필드에서 정확히 볼을 배분하고있고 HB 페르도모는 롱슛의 명수이다。

GK 피쿨도 기량이 뛰어나다。

반면 FB진이 허술한것이 우루과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꺾는 비법은 타이트한 맨투맨작전으로 우루과이의 양날개와 허리를무력화시키는것。

공격에서는 중앙돌파를 피하고 양쪽터치라인에 붙어 미드필드를 통과、약한 풀백진을 뚫는작전을 구상하고있다。

우루과이의 호세감독은『결승진출은 어렵지않다』고 장담하고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지난10년동안 7차례나 청소년대회 패권을 차지한 강호。현재의 전력은 브라질이 가장 강하고 우루과이가 2위、아르헨티나가 3위다。

우루과이선수들의 키는 한국과 비슷하며 숏패스를 위주로 돌파력이뛰어나다。

한국선수단은 12일 상오 8시(한국시간)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4강전에 대비 10일하오 경기가열리는 몬테레이로 떠났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프로야구
해태、막판기염 先頭에
三美 張明夫두들겨 3連勝

【光州=方鍾獻기자】張明夫는 이제 쉬고싶다。우승의 마지막길목에서 三美는 너무 지쳤다。선두를 쾌주하던 三美슈퍼스타즈는 金振榮감독이 구속된 가운데 우승을 다투는 해태와의 光州3연전서 연패、해태에 0·5게임차로 선두를 빼앗겼다。이틀사이 1、3번째등판한 三美의 견인차 張明夫는 피로의기색이 역연、잇달아 해태강타선에 난타당했다。

홈그라운드에서 맞은 三美와의 마지막 10차전서 해태는 李相潤、金城漢에이어 언더핸드의 朱東植을선발로 기용、三美타선을 잠재우고 3연승을거두어 지난달 22일 三美에게빼앗긴 선두자리를 18일만에 되찾았다。23승1무15패의 해태는 승률 0·605、24승17패의 三美는 승률 0·585。해태는 11게임을 남기고 三美는 9게임을남기고있다。

朱東植은 이날 8·3회동안 7안타 포볼1개 3진6개 무실점으로선방、16게임서 5승3패 3세이브를 기록했으며 李相潤은 9회초 1死1、2루의고비서 구원등판、연속삼진으로 三美반격의 불을꺼 1세이브를 기록했다。三美에이스 張明夫는 2회말 집중4안타를 맞고 2실점 다운되었으며 9회에 올라온 任昊均도 5회말 金奉淵에게 시즌14호홈런을 허용했다。

◇9일전적

◆광주

삼 미 000 000 000—0
해 태 020 010 00×—3

▲홈런=金奉淵(5회·해태)

◇중간순위 <9일현재>

팀	승	무	패
①해태	23	1	15
②삼미	24	0	17
③OB	19	0	21
④MBC	18	1	22
⑤삼성	16	3	20
⑥롯데	17	1	22

◇11일 타이틀매치를 벌이는 張正九㊧와 일본의 도전자 이나미。

油公、가나에침몰
대통령杯국제축구 자살골등 잇단 守備실책

【大邱=閔炳宅기자】프로팀 油公이 수비진의 실책으로 가나에 어이없이 2점을 내주어 3-1로 무릎을 꿇었다。

9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거행된 제13회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6일째 B조경기에서 油公은 전반6분 FB崔景植의 자살골로 1점을 가나에 허용하고 35분에는 FB辛允基가 백패스한볼을 가나의 아디즈가 가로채 숏、2번째골을 내주었다。

油公은 가나의속공을 막지못해 전반내내 고전했다。후반8분에는 가나의 이사에게 40m롱슛마저 허용、3-0으로뒤져 패색이 짙었다。

油公은 12분 후반 교체멤버로 들어간 朴潤基가 한골을 만회하고 맹공을퍼부었으나 더이상 추격하지 못했다。

油公은 1승1패가 되어 4강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한편 수단은 뉴질랜드와의 경기서 전반25분 오스만의 숏으로 선제골을 올리고 뉴질랜드도 42분 메츠거가 한골을 만회、1-1무승부를 이뤘다。

◇제6일전적

▲B조

뉴질랜드 1(1-1 0-0)1 수 단
(1승1무1패)(1무1패)
가 나 3(2-0 1-1)1 유 공
(1승2패)(1승1패)

張正九 1차방어전
日 이나미와 오늘 大邱서
WBC J플라이級

프로복싱 WBC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張正九(22)가 11일하오 大邱실내체육관에서 세계랭킹 9위 이나미·마사하루(24·伊波政春)와 타이틀 1차방어전을 갖는다。

현재 21승(10KO)1패를 마크하고있는 張正九는 18승(4KO)1무2패의 이나미보다 기량·펀치력등에서 앞서있다。

도전자 이나미는『한국에 오기전 80라운드의 스파링과 강훈련을 했기때문에 의외의 결과로 놀라게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나미는 손이많이 나오고 원투 잽과 원투 스트레이트가 날카로운 선수。張正九는 오른쪽 짧은펀치로 받아치는 전략을 세웠다。

한편 張正九와 이나미는 9일 大邱관광센터에서 대전조인식을 가졌다。WBC경기규칙에 따라 경기회수는 12라운드이며 프리녹다운제가 채택됐다。

이번 타이틀전 감독관은 아터·룰리(미국)、주심은 마틴·덴킨(미국)、부심으로 鄭淸雲(한국)、모리다·켄(일본)、네리·나다야크(필리핀)씨가 각각 지명됐다。

全南大 2勝
대학탁구연맹전

제1회 대학탁구연맹전이 10일 慶熙大수원캠퍼스서 열려 첫날 남대단체전에선 그 C조서 全南大가 安東大、仁川專門大를 4-3、4-0으로 연파하고 2승을 올렸다。이번대회는 세계대학탁구 파견선수선발전을 겸하고있다。

◇첫날전적

▲남단체A조

한국체대 4-2 부산산업대

▲동B조

한남대 4-0 서울대
인하대 4-0 부산대

▲동C조

강원대 4-0 인천전문대
전남대 4-3 안동대
전남대 4-0 인천전문대

▲여단체A조

부산동의대 4-0 효성여대
군산대 4-1 동덕여대

▲B조

한남대 4-2 인천대

88올림픽 野球추가
中共、日에협력요청

【北京=聯】중공은 오는88년 서울올림픽 경기종목에 야구를추가하도록 일본의 협력을 구한것으로 8일 밝혀졌다。

中共의 中華전국체육總會 主席 鍾師統은 7일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자이언츠」(巨人)팀의 前감독 나가시마·시게오와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청룡기 中高야구
群山商、信一깨고 4强에
타력의 浦鐵工과 맞붙어

지난해 우승팀 群山商高가 서울의 마지막 보루 信一高를 제치고 38회청룡기야구 4강에 진출、대회 2연패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폭발적인 방망이를 자랑하고있는 浦鐵工高도 대타격전에서 禹正行의 대회 첫만루홈런을 비롯한 장단14안타로 光州商을 두들겨 15-3으로 대승、群山商과 결승진출을 다투게 됐다。

朴燦洪-金德三-趙啓顯이 계투한 群山商은 1회초에는 트리플 플레이(三重殺)를 연출、실점위기를 넘기는등 信一高를 모두 5안타 무실점으로막고 공격에서는 韓京洙의 솔로홈런을포함、10안타를때려 5-0으로 낙승했다。

10일 벌어진 중등부 준결승에서는 沖岩中과 江南中이 승리했다。

◇제7일전적

◆중등부 준결승(10일·서울운)

동대문 000 000 1—1
충암중 200 001 ×—3
신일중 000 000 0—0
강남중 000 210 ×—3

◇제6일전적(9일)

◆고등부 준준결승

포철공 000 243 051—15
광주상 100 000 020—3

▲홈런=禹正行(8회·만루·포철공)

신일고 000 000 000—0
군산상 000 102 20×—5

▲홈런=韓京洙(6회·군산상)

땅끝에서 오다 <79> <80>
金成一 作

침묵하는 글자들 ③

(…혹시 한국 말은 아닐까?)

이따금씩 준호의 동경지사는 외국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국말로 텔렉스를 칠 때가있었다。IPCHALSORYU(입찰서류)라든가、SUMU LNEMAN(24만) 같은 것이 그것이었다。이세원이 혹시 한국말을 썼을지 몰라서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았다。한국 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는「이」또는「그」、그리고 문장의 끝에나오는「다」정도일 것이다。

우선 이 암호속에서 숫자2는 제외해놓고 생각해야할것같았다。왜냐하면 LK2226…의 경우 글자들로 바꾸어 놓았을때 이이이6、또는 그그그6、다다다6등이 되어 버릴것이기 때문이었다。

우선 0913071920에서 이대목이 0으로 끝난다는 것에 희망을가지고 0을「다」로 바꿔넣어보았다。

SA 53 다 8 다 7 LK 2226 PR 다 913 다 71 92 다 COS 다 6 다 5 KL 42 다 63717 PS 221 9 SWL.

우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여 준호는 이것을 가지고 더욱 파고 들기 시작했다。그러나 나머지 숫자들을 어떻게 맞춰 넣어야 할지가 또 캄캄한 것이었다。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다6 다5」같은것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다」가 두번 나오고 네자로 된 말을 그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얼른 생각나는것이「다정다감」이었지만 이세원이 이런 암호문에서 그런 한가로운 이야기를을 적어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었다。「다사다난」도 어쩌지 이런 글에는 맞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인지도 모르지 않나…)

그는 다시「다」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나열해보았다。「다시」「다음」「다리」「다방」「다락」「다정」…… 그렇게 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무엇인가 연결이 될것도 같았다。「다음 다리」이라든가「다방 다락」이라든가「다음 다락」같은 말들로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것은 그 다음단계였다。설사 많은 말들을 가운데서 몇가지를 조립해가며 말을 만들어본다 하더라도 다음에는「다」와 연결되는 글자 즉 6이나 5가 자주나와야 다음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인데、이 암호속에는 6이3회 그리고 5가2회 밖에 나오지않고 있었다。더구나 2226으로볼때 거기다가「시」「음」「리」「방」「락」「정」같은 글자를 붙여본들「2222시」「2222음」「2222리」「2222방」「2222락」「2222정」같이 되어버려서 어느 하나도 그럴듯한 말이 되는 것은 없었다。

준호는 다시 혼란속에 빠지고 있었다。도무지 어떻게 맞춰가야할지 알수가 없었다。그런데 여기나오고 있는 알파베트글자들은 그러면 또 무엇이란말인가。

이 암호에 나오고있는 알파베트는 서로 독립된 것인지 아니면 연결된 것인지 알수없었지만 7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었다。

「SA」「LK」「PR」「COS」「KL」「PS」「SWL」의 일곱그룹이었다。L과K가 좀 자주 나오고있을뿐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침묵하는 글자들④

준호는 그 알파베트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문득 그것들이 모두 두자씩 짝이 지워져있는것을 알게 되었다。다만 COS만이 예외로 석자이었다。

(두자와 석자…그런 약어표시들은 많이 있지 않은가?)

우선 각 항공사의 코드(CODE)만 해도 그랬다。지금 준호가 타고있는 항공편인 KE901이었다。KE는 곧 대한항공(KOREAN AIR LINES)의 코드였다。준호는 암호속의 영문자들을 항공사의 코드로 전부 해석해 보았다。어떤것은 잘 몰라서 승무원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SA…남아프리카항공(SOUTH AFRICAN AIRWAYS)
LK…레타바항공(LETABA AIRWAYS LTD.)
PR…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S INC.)
KL…KLM항공(ROYAL DUTCH AIRLINES)
PS…서남태평양항공(PACIFIC SOUTHWEST AIRLINES)

세글자로된 항공용어는 각도시나 공항의 코드가있었다。SEL은 서울이며 CDG는 샤를 드골 공항、NRT는 동경 나리따공항、TIP는 트리폴리같은 것이었다。

(COS라는 코드도 아마 있을지 모른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다가와 있었다。잘못지 않기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가 옆에 서 있었다。

『음료수는 뭘 드시겠어요?』

『아、위스키 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 드릴까요?』

『온·더·락스로 해 주세요』

스튜어디스는 플래스틱 글래스에 얼음을 담고 그위에다 60밀리 짜리 병에든 위스키를 쏟아부었다。

『감사합니다。아、잠깐…』

『다른 필요하신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잠깐 뭘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도시나 공항 코드중에 혹시 COS라는 것이 있습니까?』

『COS요?』

스튜어디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간을 찌푸렸다。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알아봐 드릴테니까요』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배달하고있었다。준호는 얼음위에 부어진 위스키를 주욱 들이켰다。삭막했던 가슴속이 비로소 뜨거워오고 있었다。그는 피곤한듯 눈을 껌뻑거리며 다시 그 노란 텔렉스용지를 내려다보았다。다섯 개의 항공사 이름은 온통 지구위의 오대양 육대주를 뒤덮고 있었다。스튜어디스의 음성이 날아왔다。

『COS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래요』

『아…감사합니다』

그는 몸을 등받이에 기대었다。갈수록 태산이었다。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사람찾음

346 Weston Rd. 칸추리사이드 도나스숍을 맡아서 하시던 권경수(46세 가량)씨를 찾습니다.
권씨가 6월2일 이민국에 신청한 제반서류가 도착하였으니 빨리 연락 주십시요.　전화 : 665-0790

여권분실

여권분실 재공고
일터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음. 전화 : 921-1644
여권번호 #R221791 -박우만-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종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45세의 건강한 시민권자임.
재혼할 여성을 찾음.(40세-45세)
전화 : 751-3628(오전 9시-12시 사이)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 445-6440(B) 755-0308(R)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집, 음식점, 도넛숍, 사무실, 디자인등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000 Sq Ft. 가게와 방 세놓음.
다운타운 지역. (사무실에 적합).
전화 : 368-9018, 366-0960

아파트 세놓음.
1 베드룸과 2 베드룸. Eglinton & Weston지역.
전화 : 243-0233.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 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납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수 선

FRIENDLY SHOES REPAIR SHOP
구두수선, 친절봉사
2400 Bloor St. W.(Jane Subway 옆) 전화 : 763-6188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화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8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드)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2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RES : 252-7491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Auto Service(Tune-Up, Brake, Engine)
6 Moselle Dr. 전화 749-9749 Mr.박(출장수리)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타, 김 한 호
전화: (B) 532-0206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건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안내판 9면에 계속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 1명
중국요리사 헬퍼 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경험있는 Gross a Enbroidery Machine 기술자 구함.
약간의 영어 필요함.
Please Contact Maryanne 593-0320

웨이트레스 구함.(모나미 일본식당)
월-금(AM 11:30-PM 2:30까지) 일함.
전화는 오후2시30분 이후 421-6016 Mr. 마즈다

서양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 있는
웨이트레스 급구함(근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전화 : 923-3060

도안사 구함.
전화 : 789-7351

경험있는 Cashier와 섬부마린하실 여자분 구함.
(High Park & Bloor 지역)
전화 : 762-6578

햄버거숍에서 근무하실 남자분 구함.
영어회화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921-9745(오후 8시-11시 사이)

여자 Cashier Store Helper 구함.
전화 : 465-4358

유경험자 Cashier 구합니다.
전화 : 654-6336

재봉사 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캐인 전문 교사로 영어, 수학 가르침.
(어린이, 어른) 싼 수업료.
전화 : 636-5202 Janyce

남·녀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일 지불함. 좋은 농장.
전화 : 461-799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천마리당 20불)
지렁이 삽니다.(가져오시면 천마리당 22불 드립니다.)
전화 : 763-4057

출퇴근하시면서 아기 봐주실분 구함.
전화 : 537-5164.

경험 있는 캐쉬어 구함.
전화 : 690-5554 (맥스 밀크 Mr. 정)

지렁이 잡을 분 구합니다.
남·녀 불문.
전화 : 656-5232 매일 지불함.

북미 최초의 한국인 야마하 피아노
대리점으로 사업운영에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전화 : 881-8230. Mr. 윤

룸메이트 구함. 여자분 원함.
전화 : 621-4985. (민정엄마)
저녁 6시이후(월~목요일) 전화하세요.

요리사 구함.
한식·중식요리
전화 : 498-1300 Mr. 리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 캐쉬어구함.
밤일, 낮일, 풀타임, 파타임.
전화 : 284-9325

매 매

3년된 2층 벽돌집 팝니다.
(Dufferin & Steeles)
4 Bedroom, 2 Fire Place. 센트럴 에어콘디숀.
완전히 꾸며진 지하실. 그밖에 많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좋은 House.
전화 : 638-6181, 669-4912 Mrs. Lidia
NARDI REAL ESTATE.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체스트 휠드, 침대, 소파 세트, 높은 바 의자, Love Seat, 각종 매트레스, Sectionals Desk, Discontinued Styles 매트레스.
영업시간 : MON-FRI(AM9~PM5), SAT(AM8:30~PM2)
DIAMOND BROTHERS
106 Orfus Rd.(Dufferin & Lawrence)
전화 : 781-5563

Nature & Health Food Store 팝니다.
좋은 장비, 바른 스카보로 플라자내(가족사업). 좋은 리스.
전화 : 298-1118(4-6 PM) Mr. Gary.

하우스 팝니다. (미시사가, 다운타운까지 15분거리)
5 베드룸, 화장실 3, 큰 Lots(70 × 200), 따로 부엌시설이 된 넓은 래크레이숀 룸, Work Shop, Double Garage with in office & extra parking.
Easy Financing. Asking $139,000
전화 : 279-9739, 698-6219

현재 성업중인 스토아및 건물 팝니다.
전화 : 532-8260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협편상 급매.
권리금, 스탁 합쳐 5만불 정도. 경험자로 스탁 늘려 키울수 있는 분에게 양도코자 함. 62 Main St. North Markham(HWY 7, HWY 48 북쪽 프라자)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성업중인 Gift Store 급매.
큰 Mall안에 있음. 여자 혼자서 운영 가능함.
리스 1992년까지. 전화 : 633-7479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1-523-5885 Hamilton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500. Asking $4만2천 + Stock. Rent $250
1541 O'Connor Dr. (직접 내방요)

헤어드레스 Shop 비지네스 팝니다.
Asking $12,000(장비포함 일체) 렌트 $380.
전화 : 921-5947. 5년 리스.

그로서리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6,500.
아스킹 $8만+스탁. 직접 내방 요망.
3601 Lawrence Ave. E.(Terrace Brae Plaza내)

가게 팝니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 832-1573

코인 런드리 팝니다.
1357 Danforth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렌트 $500. 리스 5년+5년옵숀
주소 : 357 Coxwell Ave.

버라이어티 스토어 팝니다 (건물포함)
주매상 : $5천 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 3 베드룸. 전화 : 781-7080.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Mall 안에 있는 과일가게 팝니다.
연매상 35만불. 문의전화는 284-3031.
(토요일 오후6시 이후, 또는 일요일 전화요망)

아주 싸게 내놓은 2층 4베드룸 큰 주택.
걸어서 한국교회에 갈 수 있음.
전화 : 787-3702(Bathurst & Wilson)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Bloor St.W. & E. of Christie St.)
주매상 : $7,500. 장소좋은 한인지역.
전화 : 977-0578(Mr. Fred or Jean) K.SEE REAL ESTATE INC.

턱숍 매매. Courtesy Tobacco & Gift. 아스킹 : $3만(Off 가능). 콘도미니움빌딩 지하에 있으며 콘비니언스 스토어로 바꿀 수 있음. 주소 : 110 Bloor St. W.(Low Concose). 전화 : 362-0861.

One Way 칼가리 비행기표 팝니다.
전화 : 598-2436

드라이클리닝 플랜트 팝니다(다운타운 플라자내)
$1,500 wk/gross. Lease to 1996.
전화 : 752-7575 Mr. Sotos(Rainbow 부동산)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림톤)

(1)토론토에서 30마일 떨어진 상업용건물(건물 Built 1978) 급매.
2개상점. 2 Apt 월 렌트수입 $750. 버라이어티스토어. 1 Apt. 구두수선가게+기계(건물주인). Asking $175,000
(2)구두수선가게(Missi On Mall). Asking $90,000.
전화 : 826-4 355

비즈네스 전망 좋음!
2 에이커의 땅이 있는 살림할 수 있는 가족 비즈네스로 적당.
개스 펌프및 세탁기 있음. 일년내내 운영함.
투치칭 호수 근방. 주인이 재정운영 관계를 도울것임.
오퍼 접수중. Moore & Lougheed Ltd. (오릴리아 지역)
전화 : 1-(705)325-4448

토론토에서 한시간~한시간 반 거리.
(1) 버라이어티 가게(살림방 포함)
(2) 작은 여름관광 캠프(2 베드룸 살림집 포함)
(3) 가족 계절적 관광사업(3 베드룸 살림집 포함)으로 10개의 Cottage, 모터보트, 가게, 캠프장 포함.
전화 : 416-797-2256(Call Roz McCullough)

몬트리얼지역 그로서리 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Lotto. 주매상 1만1천+1,300(Lotto)
Asking $9만+스탁(현찰 8만불).
NO MWAT NO DELIVERY
전화 : 1-514-364-4627 MR. 송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팝니다.
◉살림집 : 2 Bedroom, 거실, 부엌, 변소, 식당
◉가 게 : 년매상 20만불 접근
◉특수여건 : Gas 스테이숀을 할 수 있음.(집터 ½에이커)
전화 : (519)631-9778(런 던)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팝니다. 전화 : 222 -1770
주매상 $7,500-$8,000. 리스 1990년+옵션. Tor.
렌트 $832(Monthly). 800세대가 사는 턱숍.

· Kim Amusement Arcade
Over 20 Video Games + Smoke Shop
40 Centennial PKWY N
Across from Eastgate Square HAMILTON
Ask John Kim(Owner)
After 8 : 00 p.m. 1-561-011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숀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 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24-1967, ★아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